국 통 73-2-53

國論統一을위한合同세미나

綜 合 報 告 書

1973.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学術会議　進行　概況 3

2・講演　및　主題　発表　要旨 13

3・討議内容　및　結論 27

4・綜合評価 43

5・附　　録 51

1 ・學術會議進行概況

1. 學術會議 進行概況

가. 学術会議 開催目的

(1) 「6.23平和統一 外交宣言」에 대한 学界 및 言論界의 輿論을 糾合, 이의 発展策을 摸索

(2) 이에 따른 学界 및 言論界의 善導的 役割을 鼓吹

(3) 統一問題研究所 関聯者들의 紐帶強化 및 使命感 確立

(4) 南北対話 및 維新事業에 대한 学生善導 方向을 定立

나. 開催의 根拠

(1) 大統領 閣下 「6.23平和統一 外交宣言」에 따른 政策変化

(2) 大統領 閣下 73年度 当院初度巡視時 指示事項

o 漸進的, 実質的 国論統一事業 強化

(3) 73年度 当院의 事業目標 및 公約事業

o 研究所 中心의 国論善導 基盤拡大

o 国論善導 事業의 質的, 量的 充実化

다. 基本方針

(1) 全南大学校 統一問題 研究所가 主催하여 「南北対話와 国論統一」이란 総 主題下에 全国 26個 大学 및 言論機関 附設 統一 및 安保関係 研究所 代表者들이 参席하는 合同「세미나」를 開催

(2) 合同「세미나」에서 急変하는 内·外情勢에 따른 우리 나라의 統一과 安保環境을 多角的으로 分析 評価한 다음

(3) 이러한 変革期에 있어서 政府政策과 国民들의 時局観의 間隔을 좁혀 国民的 合意 基盤을 넓힐 수 있는 方案을 討議

(4)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이 南北関係 発展에 있어서 가장 現実的이고 合理的인 統一接近 努力임을 合意

(5) 同時에 北韓의 6.25 南侵挑発을 再認識하여 知識層의 輿論을 統一

(6) 合同「세미나」에서 統一政策에 관한 学生등의 輿論動向과 問題点을 把握한 다음 앞으로 政府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대한 学生指導 指針을 導出한다.

라. 実施 概要

区 分	内 容	備 考
主管및主催	(1) 主 管 : 国土統一院 (2) 主催 및 協助 :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日 時	(1) 1973. 6.28 ~ 30 (3日間)	
祝 辞	(1) 「国際情勢와 6.23宣言」	国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基調演説	(1) 「南北対話와 国論統一」	全南大 総長 柳 基 春
特別講演	(1) 「南北対話에 대한 大学의 使命」	嶺南大 統一問題 研究所長 慎 道 晟

区　分	内　容	備　考
主題発表	(1) 第1分科主題：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이 国民與論에 미치는 影響 (2) 第2分科主題：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이 大学生들의 意識構造에 미칠 影響 (3) 第3分科主題： 北韓의 対南心理戦 現況과 그 対策 (4) 第4分科主題： 6.25背景分析과 그 整理	東亜日報 安保統一問題研究所 鄭 亨 寿 東国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閔 丙 天 高大 亜細亜問題研究所 金 南 植 国防大 安保問題研究所 崔 敬 洛

区　分	内　　容	備　　考
分科討議	(1) 全分科를 통한 共通討議 事項 o 6.23 宣言의 効果를 極大化하고 潜在한 問題点을 除去할 수 있는 外交政策 o 6.23 宣言을 貫徹할 수 있는 「유엔」対策 o 6.23 宣言에 立脚한 統一政策의 再定立 問題 o 6.23 宣言을 貫徹할 수 있는 国内外 弘報宣伝 対策 o 7.4 共同声明과 6.23 宣言을 감안한 南北対話 推進対策 (2) 分科主題에 따른 分科別 討議事項 o 1 分科 : 統一政策転換과 国民與論 o 2 分科 : 大学生들의 統一安保観 分析	1 分科司会 : 外大 安秉永 2 分科司会 : 江原大 金井厚 3 分科司会 : 嶺南大 李昶雨 4 分科司会 朝鮮大 崔聖俊

区　分	内　容	備　考
	o 3分科：北韓의　対南戦略　評価 o 4分科：国土分断　長期化의　責任分析	
討議参加者	(1) 総 84名 o 大学教授　63名 o 言論機関　14名 o 其　他　7名	
綜合討議	(1) 分科別討議事項　報告 (2) 平和統一　外交政策　転換에　관한 綜合討議 (3)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共同合意書　採択	o 司会：全南大 丁得圭
関係機関協調	(1) 青瓦台 (2) 文教部 (3) 文公部 (4) 中央情報部	

마. 統一院 支援事項

区 分	内 容	備 考
祝 辞	「国際情勢와 6.23 宣言」 統一院長官 金 永 善	
分科討議参与	(1) 1分科 討議: 教育弘報室長 이 희 명 政策企劃室政治外交担当官 李 永 一 (2) 2分科 討議: 政策企劃室研究担当官 宋 英 大 (3) 3分科 討議 政策企劃室研究担当官 李 徹 (4) 4分科 討議 教育弘報室 補佐官 정 용 술	

区　分	内　容	備　考
支援報告	(1) 「平和統一外交政策과 우리의 課題」 政策企劃室 研究担当官 李　徹 (2) 「北韓敎科書에서 본 北韓의 政治思想 敎育」 敎育弘報室 補佐官 정 용 술	차 드 報 告 〃
資料支援	(1) 「北韓은 6·25를 이렇게 挑発했다」 (2) 「北韓의 偽装平和 提議」 (3) 「統一로 가는 平和外交」 等 文公部 生産弘報資料 配布	

2 · 講演및主題發表要旨

2. 講演 및 主題発表 要旨

가. 国土統一院長官 祝辞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을 「変化된 国際情勢」, 「南北関係의 問題点」, 「새로운 戦略」, 「結論」으로 나누어 그 背景意識 및 새로운 知識人의 姿勢등 祝辞要旨를 項目別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国際情勢面

o 変化된 国際情勢에 対한 能動的 措置

"우리가 추구하는 民族正当性은 그것을 다른 国家들이 現実的으로 受諾할때 비로소 実質的 意味를 부여한다."

o 国際的 共存추세와 우리의 統一努力의 조화점 摸索

現時点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要求를 一方的으로 強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立場과 다른나라의 立場을 現実的 基礎위에서 調和시키고 이 土台위에서 우리가 成就시킬 目標를 정립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o 実地外交基盤拡大

"6.23 宣言을 계기로 他友邦과의 関係에 있어서는 冷戦時代에 形成된 協力関係를 実利外交時代에 부합되도록 正常化시켰으며 過去의 이데올로기的 敵対 国家들과도 関係를

改善할 基盤을 다짐으로 우리政府의 平和統一 政策에 順応할수 있게하는 対外 環境을 造成하고 있다"

o 国際社会에서의 主導権 強化

"오늘날 国際情勢下에서는 우리가 休戦線 以北에 樹立되어 있는 共産政権의 정당성은 부인하더라도, 그 存在만은 認定하는 것이 우리의 대외적 進路打開에 非現実的 要素를 除去한다는 点에서 有益한 結果를 가져올 것임.

(2) 南北関係面

o 統一努力의 強化

"南北間의 歷史的 現実을 基盤으로 相互不干渉 原則에 立脚하여 統一努力을 展開할 것이다"

o 南北関係의 基本立場 固守

"6.23 宣言은 우리 政府의 새로운 選択이며 이것은 기왕의 우리政府가 가지고있던 立場이나 原則을 抛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原則을 現実의 基礎위에 定着시킨 것임"

(3) 対共産圏 関係改善面

o 現状維持, 互恵平等原則에 立脚한 門戸開放

"万一 우리 友邦들 가운데 우리의 対共産圏 開放政策을 誤解하여 다른 共産国家들의 対韓国政策을 考慮하지 않고 —

方的으로 北韓을 承認하게 된다면 이같은 処事는 南北間의 外交的不均衡을 招来하게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현상유지와 互惠平等原則을 破壞하게 될것이다.

(4) 対内面

o 知識人의 基本姿勢確立 必要性 시사

"우리 知識人들이 가져야할 基本姿勢로서는 첫째로 모든 形態의 体制競争에서 勝利해야한다는 국민적 정당성을 体質化하고, 둘째는 南北関係를 第3者의 立場에서 방관하는 姿勢를 버리고 政府의 새로운 政策과 方向을 놓고 国民的 合意基盤을 넓히는 국론선도의 役軍이 되어야 하며, 세째로 힘의 哲学을 信奉하는 共産主義者들과 対決해서 이길 수 있는 「国力培養의 哲学」을 信念하자는 것입니다."

나. 基調演說 : 南北対話와 国論統一

(全南大総長 柳 基 春)

(1) 朴正熙大統領은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関한 特別宣言을 発表, 「現実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땅에 定着시킴으로써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자」고 했다.

(2) 이제 名分의 時代는 가고 実利의 時代가 왔다. 6.23特別宣言은 対外的으로는 自信과 긍지를 지키고 널리 門戸를 開放, 国際社会에서 自主能動的으로 対処하고 対内的으로는 南北의 境界를 두고 서로 統질하지말고 누가 더 잘살고 누가더 国際舞台에 尊重을 받는가 競争해 보자는 局面을 展開시킨것이다.

(3) 우리는 이 競争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民族史를 이어가는 生命의 口実을 하게 된다. 이 口実을 다하려면 먼저 우리知識人과 大学人 부터 姿勢를 바르게 해야할 것이다.
南北対話에는 하나도 힘, 둘도 힘이다. 千万의 方策도 힘없이는 無策이 될것이다. 過去에는 武力만 있으면 되었으나 이제 国論統一의 간절함이 더 하게 되었다.

(4) 南北間의 全面競争은 누구보다도 知識人을 통한 対決이다. 이 싸움에 知識人과 大学人이 先頭에 서면 国論統一에 絶対的 役割을 할 것이요, 勝利의 날이 빨라질 것이다.

(5) 조국의 歷史的 現実을 똑 바로 認識하고 그 実現을 긍정하는 용기와 世界的인 視野, 国家的인 展望을 가지고 実践的인 参与로 国土統一의 중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特別講演 : 南北対話와 大学의 使命

〈嶺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長 愼 道 晟〉

(1) 大学에 있어서 統一問題研究는 決코 단일한 学科나 少数의 専門学者에만 依存할수 없는 全学問的, 全大学的인 課題이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大学을 網羅한, 그리고 専攻分野의 研究를 집대성할 수 있는 하나의 큰 綜合的인 統一問題研究機関의 設置가 바람직 하다.

(2) 大学은 보다 理論的인 責任을 分担해야 한다. 그리고 理論的인 成果는 곧 現実的인 統一政策의 根拠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때 最近 学界에서 研究되는 수업이론과 「機能主義」理論등 統一을 指向하는 体系的 理論研究는 보다 意味있는 것이 될것이다.

(3) 이와 함께 우리는 知識人으로서 国家的, 民族的으로 負荷된 使命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時代를 사는 韓国人으로서 同族相残의 悲劇의 再現을 막고, 祖国統一의 成就에 最善을 다하므로서 民族의 矜持와 栄光을 되찾는 崇高한 事業에 앞장서는 길이다.

라. 主題発表 : 南北対話가 国民與論에 미치는 影響

<東亜日報 安保統一問題研究所 鄭 享 寿>

(1) 大韓赤十字社의 離散家族찾기 提議와 7.4共同声明에 対하여 大部分의 国民은 이를 積極 歓迎했으며 누구도 反対意見을 提示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與論이 아니라 合意이다.

(2) 南北対話는 平和統一의 첫걸음으로 民族의 念願이기 때문에 南北対話의 過程에서 発生하는 이벤트에 따라 国民의 反応이 달라지는 것은 南北対話가 中断되어서는 안된다는 信念과 念願에서 反応되어지는 것이지 南北対話 그 自体를 反対하는 態度変容의 要因이 되는 意見의 変化이거나 더우기 現在的 意見으로 나타나지도 않다.

(3) 昨年 9月13日 서울서 열린 南北赤会談때 尹基福의 「敬愛하는 수령」云云하는 発言은 온 国民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国民들의 南北対話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念願에는 変함이 없었고 会談을 成功시키기 為해 会談方式을 再検討해야 한다는 등 会談継続을 為한 効果的인 方法論問題를 提起했으며 会談自体를 否定하거나 中断을 要求하지는 않았다.

(4) 特히 南北対話는 다른 政治的 問題와는 달리 国民의 合意를 얻고 있음으로 政策을 促求해 나가는 데 対内的인 不一致는 発見할 수 없는 것이 特徴이다. 南北対話의 成功은 온 国民의 念願이기 때문이다.

마. 主題発表 : 南北対話가 大学生 意識構造에 미치는 影響

<東国大学校 教授 閔 丙 天>

(1) 南北対話와 関聯하여 韓国의 大学生들의 어떤 政治的意識을 갖고 있는가? 特히 思想的 危険地帯인가의 여부를 옳바르게 把握하는 것은 大学生의 善導에 重要한 指針을 준다.

(2) 지난 71年12月과 72年9月의 大学在学生 및 大学出身者들에 対한 南北対話에 対한 意見調査의 反応에서 나타난 意識変動을 「統一観」 「情勢観」 「赤十字会談에 対한 意見」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3) 이러한 調査에서 나타난 몇가지 問題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対話過程에서 北韓側이 主張한 事項에 同助的이거나 北韓社会에 好意的 反応을 보이는 大学生이 極히 少数이긴 하나 無視할 수 없이 全事項에서 비슷한 比率로 나타났다. 이것은 社会 및 学校教育을 通한 政治教育에 虚点이 있음을 드러낸것이다.

둘째, 南北対話에 対한 기대수준이 現実水準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反面에 統一論念論者가 71年에 比해 7倍에 이르고 있다는 点이다. 統一이 곧 実現될지도 모른다는 감상적 民主主義와 조급통일론이 後退한 点에서는 現実로 回復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나 大学生의 一部라도 이런 観念을 하는 것은 大学生 善導의 새로운 問題点을 제기하는 것이다.

네째로 統一実現段階論에 대한 의견의 統一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政府가 従来에 主張한 3段階 統一論이 対話가 이원적으로 進行되면서 또 対話過程에서 生긴 問題性에 影響되어 国民의사를 集中的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問題点에 대한 対策으로서는 첫째 大学生에 北韓에 대한 教育이 現実的基盤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教育目体가 実際 北韓実態의 正確한 解説과 評価에 의론해야 할 것이며,

둘째 統一問題, 安保問題, 北韓에 対한 研究에 学生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여 批判能力을 길러야 하며, 세째로 大学講義題目 또는 国民倫理 科目内容에 北韓実態 共産国政治論, 安全保障論, 統一問題등이 包含되도록 할것이다.

바. 主題発表 : 北韓의 対南心理戦 現況評価와 그 対策

<高大亜細亜問題 研究所 金 南 植>

(1) 北韓의 対南心理戦 内容은 7.4 共同声明 前後에 와서는 보다 多様性을 띄고 그때 그때의 時間性과 具体性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 같다.

(2) 昨年 11月 20日 南北調節委에서 비방放送 中断을 合意한後 우리側은 対北放送을 事実上 中断했으나 北韓側은 従前의 誹謗言調가 조금 달라졌을뿐 그 内容은 何等의 改善도 보이지 않는 보다 교묘한 心理戦放送을 継続하였다.

(3) 今年에 들어서면서는 다시 会議以前의 誹謗보다 더 激化된 放送을 하고있다.

(4) 北韓은 今年부터 対南心理戦의 効果를 높이기 為한 方法으로 対外心理戦活動에 力点을 加重하고 있다. 지난 2月 中旬부터 大大的인 巡訪外交를 펴 16個 代表団이 5月末 現在 72個国을 巡訪했으며 特히 IPU와 WHO 加入決定을 契機로 国際舞台에서 積極的인 宣伝 공세를 取함으로써 対南心理戦에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다.

(5) 이에 対한 対備策으로서는 北韓側의 相互誹謗 禁止등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充実히 移行케 하고 間接的인 心理戦作戦도 中止시키고 赤化統一論을 抛棄토록 만드는 하편 朴正熙大統領의 6.23 宣言에 対한 対内的 弘報活動으로 国民의 一致된 意志와 総和를 이룩해야 된다.

사. 主題発表 : 6.25의 背景分析과 그 整理

- 戦争挑発의 検証을 中心으로 -

<国防大学院 教授 崔 敬 洛>

(1) 6.25 1週日前 38線을 視察한 「멜러스」美国務省 顧問은 「韓国은 孤立해 있지 않다」, 「極東의 平和維持를 為해 美国의 積極的인 行動이 있을것」이라는 등의 発言은 金日成에게 対韓防衛 除外라는 (애치선의 1950.2月의 演説中 美国의 極東防衛線을 알류산열도 - 日本 - 오끼나와 線으로 한정하므로 한번도를 極東防衛線上에서 除外함) 美国의 基本戦略이 미구에 수정되어 積極的인 防衛政策으로 転換하지 않나 하는 判断을 하게되어 好機를 놓치기 前에 先手를 쳐야겠다는 초조감 또는 強迫観念을 주었다.

(2) 50年 2月14日 中·蘇間에 締結된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条約 第4条가 「……相互 理解에 関한 모든 重要한 国際問題에 関해 相互協議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이런 拘束力을 가진 条約이 멀지않아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共사이에도 締結되는 경우 速戦速決로 韓国을 공략할 수 있는 好機를 계지 当한다고 하는것이 참을수 없었을 것이다.

(3) 北韓은 이미 13個 師団 및 3개의 旅団을 編成 完了, 戦車 150台, 砲6百門을 強力한 軍事力을 保有한 反面 韓国軍은 5個師団6万5千名의 兵力中 3個師団만이 38線에 配置되어 있었으며 戦車나 重砲등의 装備를 갖추지 못한 状態였다. 또한 50年5.30 総選結果 210名의 与党議員中 不過 30名이 再選, 李承晩政権에 対한 国民의 不信이나타나 政治的 不安定 状態가 노증되었다.

(4) 虚弱한 軍事力의 保有와 政治的不安定의 露出은 侵略者가 侵略을 할만한 対象物이었다.

3 · 討 議 內 容 및 結 論

3 . 討議内容 및 結論

가. 全分科를 通한 共通討議事項

(1) 6. 23宣言에 対한 評価

肯定的인 側面	(가) 外交政策上 現実的 代案으로 歓迎, 国際的 "이미지·크라이시즈"를 解消하고 高調된 統一에의 期待를 整頓시킨 措置 (나) 南北韓의 対外的 競争에 있어서의 出発点이며 対共産圏 接触의 突破口 마련 (다) 閉鎖的인 北韓을 国際社会에 誘致, 그들의 排他的 硬直性을 順化시키고 北韓社会 開放誘導 (라) 南北韓을 実質的인 共存으로 把握, 民族的 次元에서 統一指向的인 側面과 政治的次元에서 現状 固定化라는 側面間의 調和問題가 抬頭

否定的인 側面 (問題点)	(가) 6．23宣言에 対한 韓国政府의 意図가 対外的으로 反映될지 疑問 ㅇ外国의 執権層 - 肯定的이나, 統一抛棄로 看做우려 (나) 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를 政治的 動機에서 処理함으로써 分断固定化의 結果를 招来 (다) 6．23宣言 以前에는 民族的 統一念願이 強하게 作用하여 統一에 対한 合意形成이 自然的으로 조성되었으나 6．23宣言으로 統一接近의 方向과 目標가 現実化됨으로써 念願과 現実間의 괴리로 因한 輿論分裂 抬頭우려

(2) 6. 23宣言의 効果를 極大化하고 問題点을 除去할 수 있는 外交政策

(가) 厳格한 相互主義原則에 依拠, 「유엔」外交에 못지 않게 開発国家에 対한 外交活動을 強化해야 한다.

(나) 対共産圏 接近보다는 自由世界 結束을 強化하는데 6. 23 宣言을 活用해야 한다.

(다) 中立圏 包摂問題가 先行条件이므로 対中立圏外交를 為해서는 国内対応勢力을 養成할 必要가 있으므로 이른바 "統制된 革新政党"(民族主義政党)을 育成, 活用하여야 한다.

(라) 소련 및 中共에 対하여는 国内報導問題를 多少 유연하게 하여 中·소의 大韓民国"이미지"를 改善하는 方向에서 対소·対中共 接近의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北韓에 対한 国家不承認 方針과 南北 「유엔」同時加入의 矛盾性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은 分断国의 特殊関係 理論 (一民族, 一国家, 두政府観)을 論理的으로 体系化하여 対外 弘報를 強化하는 일이다.

(3) 6.23宣言을 貫徹할 수 있는 「유엔」 対策

(가) 「언커크」問題는 譲歩하여도 何等의 損害가 없으므로 改編보다는 차라리 解体하는 것이 有利하다. 왜냐하면 改編할 境遇에는 敵性国家의 「언커크」참여도 豫想되므로 "統革党과 같은 共産地下組織이 総選에 参与케 圧力이 加해질 수 있다.

(나) 「유엔」外交는 能動的 加入申請보다는 強大国의 動向을 注視하여 我側이 大勢을 活用할 수 있는 弾力的인 政策의 駆使가 必要하다.

(다)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問題는 6.23宣言으로 일단 提起되었기 때문에 北韓의 「유엔」加入을 能動的으로 促求할 必要까지는 없으며 我側은 如前히 韓半島의 正統性 確保를 為하여 継続的인 弘報活動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라) 現国際関係의 政治的側面에서는 탈「유엔」경향이 圧倒的이므로 南北韓의 「유엔」加入이 成就되더라도 我側은 対「유엔」外交에 政策의 力点을 둘 必要는 없다.

(4) 6. 23宣言에 立脚한 統一政策의 再定立問題

(가) 우리의 3段階 接近論을 統一政策으로서는 不足한 側面이 많으므로 統一에 対한 「비존」을 내 세울 수 있는 보다 現実的이고 論理的인 「마스타·플랜」(統一政策)이 必要하다.

(나) 이러한 政策은 競争的側面을 強調한 터전위에 作成되어야 하며, 窮極的으로는 競争的 共存의 進歩된 形態로서 我側에 有利한 統一을 達成토록 하여야 한다.

(다) 南北韓의 수렴化를 向한 体制接近은 競争的 共存構造下에서만 可能하므로 我側은 対話의 進行過程에서 相対方의 強点과 弱点을 識別하여 我側의 脆弱点을 補完할 수 있는 基準을 찾아야 한다.

(라) 結局 統一은 分断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解決하기 容易한 것부터 하나씩 軽減시켜 나가는 이 過程에서 体制相互間의 収斂化的 変化가 이루어 질 수 있는 戦略戦術을 対内外的으로 拡大시켜야 한다.

(5) 6.23宣言을 貫徹할 수 있는 国内外 弘報宣伝対策

対外面	(가) 6.23宣言으로 分断固定化라는 認識을 対外的으로 크게 줄 念慮가 있으므로 当場 이에 対한 対外弘報対策을 樹立하여 弘報活動을 積極 強化하여야 한다. (나) 소련, 中共, 東欧 및 中立国家에 対하여 韓国의 純粋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弘報物을 継続供給하여야 한다. (政治的 宣伝排除) (다) 大統領은 海外記者, 特히 共産圏 言論人을 招請하여 「인터뷰」를 자주 갖는 것은 매우 効果的이다. (金日成의 境遇를 参酌하여) (라) 海外供給用 弘報物 生産機関을 特別히 設置하여 外国図書館에 積極的으로 供給하여 北韓의 弘報活動을 凌駕하도록 하여야 한다.

対内面	(가) 北韓社会의 事実認識을 基礎로 自由体制에 対한 国民의 自信感을 高揚하는 方向에서 国内弘報政策을 再定立할 必要가 있다. (例：厚生面에서 北韓을 凌駕) (나) 北韓의 低次元的 偽装平和攻勢 宣伝에 国民이 심중을 느낄 수 있도록 北韓宣伝内容을 漸次 公開하여야 한다. (다) 北韓関係 資料는 大学生 및 言論人들에게 公開할 基準을 設定하여 開放함으로써 우리의 統一政策의 正当性을 스스로 인식토록 弘報하여야 한다.

(6) 6. 23宣言과 7. 4南北共同声明을 調和시킨 南北対話 推進対策

(가) 北韓側의 諸般 提議에 積極的, 能動的으로 対処하기 為해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武力不行使原則을 核心으로 하는 南北韓의 具体的 基本関係의 設定이 必要하다.

(나) 政府의 段階的 統一接近方式이 口号가 아닌 実践対策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우선 非政治分野의 多様한 交流方案을 具体的으로 研究開発하여 北韓側에 集中的으로 提議한다.

(다) 南北調節委 5個分科委員会 同時構成問題에 있어서는 굳이 反対할 必要가 없다. 왜냐하면 軍事, 政治問題에 関하여는 「찬넬」을 놓어 놓은 다음에도 協商過程에서 얼마든지 이를 適切히 料理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10月維新의 名分을 維持하고 分断固定化의 責任을 지지 않도록 北韓의 "2個의 韓国"유도実態를 詳細히 調査하여 南北対話에서 攻撃的 協商機能으로 利用하는 것은 勿論 国民이 모두 熟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分科主題에 따른 分科別 討議事項

(1) 1分科主題 : 統一政策転換과 国民與論

(가) 問題点

① 6.23宣言이 있기前까지는 南北対話를 통한 統一接近努力은 民族的 当為性에 立脚하여 與論形成過程이 必要없이 無条件的 合意가 成立되었음.

② 그러나 6.23 宣言으로 統一接近의 方向과 目標가 現実化되었기 때문에 統一에 対한 国論統一의 課題는 이제부터 提起되고 있음.

③ 6.23宣言이 平和共存을 미끼로 分断의 永久化 乃至 制度化로 展開된다는 느낌이 확산되면 国論分裂은 深化될 것이다.

(나) 対策

(1) 原則的으로 民族的次元의 課題와 政治現実的 次元의 課題를 調和시키는 教育弘報의 強化 必要

(2) 南北関係는 現実的 次元에서는 暫定的으로 分断 固着化 過程을 経由해야 하나 이 状態의 응결을 防止키 위해 南北対話는 継続 推進한것

(3) 理論上 相異한 体制의 統合은 体制競争段階를 거쳐야 하며 이 過程에서 異質性要因이 줄어 들므로써 共通分母가 創立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2) 2分科主題 : 大学生들의 統一安保觀 分析

(가) 東国大学校 安保問題研究所가 実施한 大学生들의 「統一政策과 南北対話」와 関聯된 輿論調査結果 大概 다음과 같은 傾向으로 나타나 있다.

- o 統一悲観論의 増大
- o 南北対話 不振에 대한 不満의 漸増
- o 南北対話에 臨하는 双方態度에 誠実한 欠如 認識이 増大
- o 南北対話의 参与範囲拡大 및 内容公開를 希望
- o 調査対象中 10%가 北韓側 主張에 好意的 反応 表示

(나) 이를 綜合하여 分析해 볼 때 統一悲観論 増大와 南北対話 不振에 대한 不満은 当初의 期待와 対話 現実이 어긋나는데 起因된다고 評価된다.

(다) 또한 大学生들은 政府의 南北対話 推進動機를 政権史的 目的과 結付시켜 解釈하는데서 誤解가 発生한다고 본다.

(라) 그 밖에 調査対象中 10% 가량이 北韓側 主張에 肯定的 反応을 보인것은 「이데올로기」面에서 北韓側을 同調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現実不満에 起因하는 것으로 評価하고 있다.

(아) 그러나 以上과 같은 統一安保観에 대한 問題点이 있긴 하지만 大多数의 学生들의 統一意識은 健全하고 愛国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바) 政府는 南北対話의 参与의 幅을 넓히고 進行内容을 国民에게 알릴 以要가 있으며,

(사) 北韓社会의 事実認識을 基礎로 自由体制에 대한 自信感을 高揚시키는 方向에서 弘報·教育政策을 再定立해야 한다.

(아) 그리고 北韓의 低次元的 宣伝에 国民이 실증이 느끼도록 北韓 宣伝内容을 公開하는 것이 좋다.

(3) 3分科主題 : 北韓의 対南心理戰 , 評価와 그 対策

(가) 1972.11.11의 南北間의 誹謗·중상 中止에 明確한 한계성과 区分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당 목소리」를 中止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 反面에 역공세를 当하고 있는 것이다.

(나) 6.23 宣言에 따른 韓国의 7個項과 北韓의 5個綱領 (金日成 演説) 에는 差異点이 있으며 , 北韓의 5個項은 新生国家들의 호응 要素가 많으므로 「두個의 韓国」에 対한 책임전가의 可能性이 있다.

(다) 北韓의 対南 心理戰은 実質的으로 根拠가 없는 것이므로 , 問題는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라) 北韓의 対南心理戰에대한 代案으로서는 그들의 공세에 대하여 똑같은 강도로서 공격을 펴는 方法과 공세를 취하지 않고 黙殺하는 한편 正確한 事実報道만을 하는 方法이 있다. 이 時点에서 이 두가지 方法에 対한 損益을 가릴 수 없다.

(마) 北韓의 対南非難 放送 (特히 통혁당 목소리) 을 원천적으로 封鎖하는 方法은 北韓의 革命路線이 存在하는한 不可能하다.

(바) 北韓의 対南心理戰을 제지하는 最善의 方策은 그들의 心理戰에 먹혀 들어갈수 있는 韓国의 体制的 内部的 矛盾을 除去하는것 밖에 없다.

(4) 4分科主題：国土分断 長期化의 責任分析

(가) 北韓이 6．25挑発의 責任을 韓国에 転嫁시키려는 底意를 分析하여 国内外에 徹底히 弘報할 必要가 있다．

(나) 그 理由는 6．25 未経験世代가 増加一路에 있고 北韓의 虚偽宣伝으로 말미아마 海外一部 僑胞들의 認識이 歪曲되어 가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다) 그 方法으로는 첫째 北韓의 6．25挑発에 関한 虚偽날조 事実을 史実을 들어 具体的으로 指摘하는 方法과

(라) 두째로는 北韓의 날조事実을 確認시키는 間接的 方法을 活用하는 것이 보다 効果的이다．

（例：「매스콤」을 通하여 6．25参戦海外人士들의 回想録 発表 等）

4．綜　　合　　評　　價

4. 綜合評価

가. 6.23宣言에 対한 意見	(1) 「南北対話와 国論統一」이라는 総主題下 4個 主題発表를 通한 分科 및 全体討議에서 急変하는 内外情勢에 따른 우리나라의 統一과 安保環境을 多角的으로 評価하였으며 (2) 同時에 「6. 23宣言」으로 提起된 平和統一外交政策을 中心으로 그의 背景的 理由와 現実的 妥当性에 対하여 充分히 意見을 交換한 다음 (3) 그와같은 政策転換이 南北間의 相互関係改善을 위한 基本立場과 接近方法의 差異로 因하여 事実上 南北対話가 膠着状態에 빠졌고, 한便 北韓当局은 南北対話를 利用하여 対外的으로 2個의 韓国을 追求하는 策動을 敢行하고 있는 데다가 (4) 現状固定化와 実利追求의 国際情勢趨勢는 韓国의 分断固定化를 確定시키는 方向으로 움직이는 内外的 挑戦要素를 勘案할 때 不可避한 措置이며, 우리가 従前의 基本立場을 固守할 경우 国際的孤立을 면하기 어렵다는 肯定的인 結論에 到達했음.

나. 6.23宣言에 対한 共同合意書	(1) 6. 23에 発表된 政府의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対한 実用性 確認 (2) 6. 23平和統一外交政策의 現実性 確認 (3) 平和統一 努力에 対한 北韓의 拒否行動이 分断固定化를 目標로 한 劃策임을 確認 (4) 国力培養과 힘의 立場堅持가 統一과 安保의 実質的 基礎임을 闡明 (5) 「유엔」軍의 駐屯任務가 韓半島 平和秩序維持임을 確認 (6) 国民들의 時局觀 善導와 国民的 合意形成에 있어 大学과 言論機関의 主導的 役割 是認 (7) 大学과 言論機関에 北韓 및 共産圈 関係資料 開放, 財政的 支援 拡大

다. 6.23宣言에 対한 発展策 討議	(1) 合同「세미나」에 参席한 学界, 言論界代表들은 「6. 23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의 発展策을 摸索하는 生産的인 方向에서 討議를 展開하였던 바 (2) 무엇보다 于先 国力培養과 힘의 立場이 統一과 安保의 実質的인 基盤임에 意見을 모았고 (3) 6.23宣言의 効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潜在한 問題点을 建設的인 立場에서 提起하였음. 即 6.23宣言이 南北間을 実質的인 共存으로 把握하여 民族的 次元에서 統一志向的인 側面과 政治的 次元에서 現状固定化라는 側面間의 調和問題를 앞으로 우리가 当面한 重要課題로서 指摘하였고. (4) 外交政策으로는 厳格한 相互主義原則下에 「유엔」外交에 뭇지 않게 個別国家에 対한 外交活動을 強化하여야 하며, 「유엔」外交는 能動的인 加入申請 보다는 強大国의 動向을 注視하여 우리가 大勢를 活用할 수 있는 弾力的인 政策駆使가 必要하다고 建議하였고

(5) 統一政策面에 있어서는 우리의 3段階 接近論을 統一에 対한 「비존」을 내세울 수 있는 보다 現実的이고 論理的인 次元에서 새로히 定立하되 経済的側面을 強調한 터전 위에서 作成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対外에 있어서는 6.23宣言이 対外的으로 分断固定化라는 認識을 크게 줄 念慮가 있으로 直刻的으로 이에 対한 弘報対策을 樹立하여 弘報活動을 展開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6) 対内弘報対策에 있어서는 北韓社会의 事実認識을 基礎로 自由体制에 対한 国民의 自信感을 高揚하는 方向에서 再定立할 必要가 있다고 建議하였고

(7) 6.23宣言을 基礎로 한 南北対話推進対策에 있어서는 北韓提議에 積極的, 能動的으로 対処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武力不行使原則을 核心으로 한 南北韓의 具体的인 基本関係 設定이 必要하다고 하였고 또한 経済·社会·文化分野의 多様한 交流方案을 集中的으로 提議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라. 否定的意見과 対策	(1) 以上과 같은 6. 23宣言을 貫徹할 수 있는 諸般 建設的이고 生産的인 意見에 反하여 多少 否定的인 意見도 있었으며, 그것은 統一이라는 民族的 課題를 政治的 動機에서 処理함으로써 分断固定化의 結果를 招来하였다는 意見인 바, 이같은 点들은 学者들이나 言論人들, 그리고 与·野政治人들로 하여금 南北対話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実感하게 하는 方法을 講究함으로써 解消할 수 있다고 評価된다. (南北対話에 参与케 함으로써) (2) 結論的으로 이번 合同「세미나」에서 提起된 問題点은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에 対한 弘報活動인 바, 여기에 있어서는 学界 및 言論界의 善導的 役割을 보다 強調되어야 겠고 또한 大学生들의 善導対策이 切実히 要請된다고 봄

5 ・ 附　　錄

附 錄 目 次

가. 祝 辭

国 土 統 一 院 長 官 金 永 善 55

나. 基調講演「南北対話와 国論統一」

全 南 大 總 長 柳 基 春 71

다. 特別講演「南北対話와 大学의 使命」

嶺 南 大 統 一 問 題 研 究 所 長 愼 道 晟 87

라. 第1主題「南北対話가 国民輿論에 미칠 影響」

東亜日報安保統一問題研究所 鄭 亨 寿 103

마. 第2主題「南北対話가 大学生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影響」

東 国 大 学 校 敎 授 閔 丙 天 117

바. 第3主題「北韓対南心理戰現況評価와 그 対策」

高麗大学校亜細亜問題研究所研究員 金 南 植 133

사. 第4主題「6·25의 背景分析과 그 整理」

国 防 大 学 院 副 敎 授 崔 敬 洛 147

아. 学術会議 合意書

全南大学校統一問題研究所 165

全南大學校統一問題研究所主催

學　術　會　議

祝　辭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祝　　辞

○ 머 릿 말

尊敬하는 全南大学校 柳基春 総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学界 言論界의 統一問題 専門家 여러분!

本人은 于先 우리 모두의 所願인 祖国의 統一과 韓半島의 平和戦略이 政府의 새로운 選択과 決断에 의하여 가장 現実的 次元에서 새롭게 展開되는 重大한 時点에 全国 各地의 統一問題 専門家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같은 大規模 学術会議를 組織하신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関係者들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임에 参席하기 위해 귀중한 時間을 割愛하여 이곳에 모이신 学界 및 言論機関의 参加者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本人이 알기로는 全国 各大学과 言論機関에 附設된 統一関係研究所의 指導級 人士들이 五千万 우리 겨레의 共同関心事인 祖国의 統一과 平和問題를 討論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昨年度 嶺南大学校의 統一会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라고 記憶합니다.

本人은 平素부터 우리의 統一과 平和는 어느 경우에나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를 必要로 하는 우리 政府와 国民이 自主的 努力과 決断에 의해서만 成就될 수 있는 課題로 定義해 왔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임은 時期的으로는 統一로 向한 政府의 새로운 平和外交政策이 内外에 천명된 때이고 또 構成面에서 보아도 共通된 問題状況 속에서 統一政策을 理論的으로 探究하는 国内 専門家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층 더 값있고 意味있는 結実이 豊富하게 生産되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特히 오늘의 이 時点은 우리 民族의 進路를 우리 스스로의 努力, 智慧 그리고 勇気로써 開拓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民族的 自主, 自彊의 時期이기 때문에.

이 重大한 転換期의 歷史를 誤謬없이 展開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国内 知識人들의 団合과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切実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政府는 여러분들의 討論에 至大한 関心을 갖는 것이며 이 会議에서 導出되는 結論에 큰 期待를 걸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명철한 批判과 評価, 그리고 助言 및 声援을 갈망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変化된 国際情勢

친애하는 통일문제 전문가 여러분!

本人은 政府에서 統一政策을 맡고 있는 関係의 한 사람으로서 이 機会를 빌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정세를 살펴보면서 지난 6月 23日에 発表된 朴大統領閣下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과 이에 관련된 우리 政府의 立場 그리고 앞으로 当面한 課題들을 随意없이 議論해보고 싶읍니다.

統一問題를 探求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지만 70年代에 접어들어 韓半島 주변의 국제정세는 이 나라가 북위 38度線을 境界로 兩断되든 当時와는 根本的으로 다른 狀況을 造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南北을 가르는 分界線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南北을 人為的으로 分断시켰든 東西冷戰의 国際関係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읍니다.

美·日安保同盟과 中·蘇軍事同盟이 韓半島를 中間에 두고 冷戰으로 맞섰던 時代는 지나 갔읍니다.

적어도 이들 四大国 関係에 있어서 同盟関係는 根本的으로 変質되었으며 文書上으로는 同盟条約이 残存하고 있지만 自国의 利益을 모든 것에 우선 시키는 実利追求의 새로운 強大国関係가 胎動하고 있는 것입니다.

同時에 이들 強大国들은 極東地域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緊張의 緩和와 모든 局面의 現状維持가 그들이 追求하는 새로운 아시아 秩序形成에 有益하다는 結論에 合意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現状維持를 基調로 하는 強大国들의 勢力均衡으로 平和共存을 維持하려는 것이 하나의 主된 潮流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情勢는 現状의 維持가 아닌 現状의 打破가 論理的 前提로 되는 우리의 統一努力과 正面으로 마찰한다는 点에서 우리 民族의 進路에 하나의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는 情勢라고 하지않을 수 없읍니다.

即 祖国의 統一이라는 民族至上의 念願을 이같은 情勢속에서 어떻게 追求할 것인가의 問題인 것입니다.

한편 視角을 바꾸어 유엔의 機能과 情勢를 보아도 우리는 同一한 問題에 直面하게 됩니다.

周知하는 바이지만 오늘의 유엔은 그 成立의 基本이 되는 政治的 機能 即 国際平和와 安全의 維持機能은 完全히 마비되고 世界의 모든 主要争点은 例外없이 유엔 테두리밖에서 論議되고 決定되는 実情에 놓여 있읍니다.

只今 유엔은 本然의 政治機能이 完全 마비된 상태하에서 유엔의 부수적 기능에 属하는 事項들。例컨대 環境改善問題，海洋法 制定問題，経済的 先后進国間의 隔差解消問題，航空機 被拉防止 問題같은 非政治機能이 為主가 되어 움직이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侵略者와 平和愛護国을 엄격히 峻別하든 創立当時의 権威는 빛을 잃고 모든 国家에 門戸를 여는 会員国 普遍主義가 強調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엔은 더이상 기능과 능력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統一에 実質的으로 貢献할 立場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統一과 安全에 관련되는 国際情勢는 周辺情勢와 유엔内部情勢를 莫論하고 우리가 이 情勢에 自主的으로 対処하지 못할 경우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統一에 대한 希望을 앗아가고 그 反対給付로 分断의 固定化라는 民族的 危機를 造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国際的 孤児로 만들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

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統一에 대한 우리의 希望의 위기가 있고 동시에 民族的 각성과 現実的 情勢觀 定立의 必然性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南北関係의 問題点

우리가 지금 이 싯점에서 直面하는 위기는 非但 이같은 国際情勢에서만 提起되는 것은 아닙니다.

祖国의 平和統一이 展望을 밝히고 또 그 可能性을 全世界에 証言하기 위해 推進되고 있는 南北対話에서도 우리는 自主的 平和統一에 대한 希望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가 바라는 祖国의 平和統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平和統一에 대한 북한측의 拒否와 그들의 実質的인 反統一政策에 起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解放直后 두차례의 統一機会가 있었읍니다. 하나는 反託으로 뭉쳐진 民族的 団合을 토대로 統一된 임시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연합의 결의로 과견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南北을 통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주어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機会는 北韓側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霧散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950年 6月25日 不意의 南侵을 감행하여 百余万의 同族을 殺傷하고 全国土를 焦土化시키는 民族的 大悲劇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에서 統一이 平和的으로 이루어질 可能性을 源泉的으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南北間에는 증오와 적대의 두꺼운 軍事障壁이 쌓이고 이를 배경으로 南과 北은 相互異質化의 길을 걷는 슬픈 歷史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같이 体質化된 平和背反的 属性에도 不拘하고 国土分断이 四半世紀를 経過한 70年代에 접어들면서 人為的 分断으로 말미암은 겨레의 苦痛과 不便을 경감시키고 5千万 동포가 전쟁없는 평화속에 번영을 구가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民族的 正当性에 立脚하여, 南北間의 극한적인 対決의 構造를 対話의 構造로 転換시키기 위한 단계적 対策을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70年 8月15日 光復節記念辞에서 밝힌 朴大統領閣下의 平和統一構想宣言을 起点으로 해서, 1971年 8月 12日에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苦痛을 덜기위한 赤十字会談을 提案했는가 하면 그 다음해인 1972年 7月 4日에는 国内外의 錯雜한 反応을 예상하면서도 大統領에게 부여된 統治権을 行使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共同声明을 誘導해 냈던 것입니다.

이같은 措置를 통해 南北間에는 対話의 門이 열리고 이로서 지난 27년간의 凄絶한 対決의 構造는 対話의 構造도 転換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는 이 対話를 통해 우선은 국토분단에 기인하는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기 용이한 것부터 하나씩 덜어감으로써 궁극적

으로 모든 苦痛을 完全히 除去하고 이 過程에서 조성되는 신뢰와 이해 그리고 민족적 동질감의 확대된 기반위에서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부의 平和統一誘導 措置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면서도 한편으로는 大韓民国의 安全을 위태롭게 할 軍事 및 政治問題의 一括解決이라는 強奪的 要求를 提起하여 会談進行에 難関을 造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対話를 그들의 国際地位伸張에 逆利用함으로써 対外的으로 「두개의 한국」 印象을 扶植시키는 分断固定化 政策을 追求하는데 狂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北韓側은 또다시 祖国이 平和的으로 統一될 前途에 심각한 난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의 영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希望의 危機를 直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새로운 전략

친애하는 통일문제 전문가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 5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国務総理를 随行하여 西部 유럽의 友邦들과 日本을 순방하고 왔읍니다.

이 여행을 통해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真理가 있다면 그것은 단하나 政治는 理想主義的 純粋理論이나 主観的倫理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엄한 現実主義의 論理에서 이루어진다는 事実이었읍니다.

현실주의자들과의 対話는 하나같이 냉엄한 現実에 기초를 둔 問題의 提起에서만 비로소 協力과 理解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旅行을 통하여 우리가 譲歩할 수 없는 基本 立場은 堅持해야 하지만 戦略戦術問題는 恒常 国際潮流에 能動的으로 伸縮性있게 調和시켜나가는 知慧와 勇気가 必要하다는 냉엄한 事実을 確信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가 追求하는 民族的 正当性은 그것을 다른 国家들이 現実的으로 受諾할때 비로소 実質的 意味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現時点에서 우리가 追求할 것은 다른나라에게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다른 나라의 입장을 현실적 기초위에서 조화시키고 이 토대위에 우리가 성취시킬 목표를 定立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現代 国際関係가 形成되는 기본전제로서 緊張緩和의 潮流와 国際的 現実認定趨勢를 外面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問題解決의 새로운 基盤으로 能動的으로 活用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오늘의 国際情勢下에서는 우리가 休戦線以北에 樹立되어 있는 共産政権을 存在와 価値의 両面에서 同時에 否認하여 얻을 수 있는 具体的 利益이 分明치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정권의 正当性은 否認하드라도 그 存在만은 認定하는 것이 우리의 対外的 進路打開에 非現実 要素를 除去한다는 点에서 有益한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계속 봉쇄시키는 것이 정

녕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유익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냉철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국제진출 봉쇄는 우리의 지난날의 外交目標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唯一合法性을 강화했으나 또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이 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에 戰爭擁護勢力의 長期執權을 가능케한 측면도 있고 아울러 北韓体制가 東欧羅巴 国家들처럼 自由化를 向한 体制変質의 可能性마저 봉쇄하는 結果도 招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봉쇄정책에 수반하는 이같은 否定的 側面은 平和統一이라는 遠大한 目標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觀点에서 朴大統領閣下께서는 이번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에서 北韓의 国際機構參与나 加入을 굳이 反対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韓半島内의 唯一合法性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国際関係에서 누릴 特権이 아니고 平和統一에 대한 政府의 責任을 意味할진데 우리가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迂回戰略으로 북한의 국제 진출을 反対하지 않는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다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以上의 決定을 包含한 새로운 통일외교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대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冷戰時代에 形成된 協力関係를 実利外交 時代에 부합하도록 正常化시켰으며 나아가 過去의 이데올로기的 敵対国家들과도 関係를 改善할 기반을 다짐으로써 北韓이 우리 政

府의 정당한 平和統一 政策에 順応할 수 있게 하는 対外環境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選択은 既往에 우리 政府가 가지고 있던 立場이나 原則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原則을 現実의 기초 위에 定着시킨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조치에서 우리가 喪失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統一外交政策樹立過程에 潜在해 있던 非現実的 減性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이 어느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承認하여 두개의 韓国을 制度化한 措置로 해석되어서는 안돼겠읍니다.

北韓에 対한 国家承認은 国家情勢의 영향을 언제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반도의 政治構造속에서 一種의 統一포기, 分断固定化로 評価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関係를 동서독관계처럼 완전히 国家対 国家関係로 転換시킨 基礎위에서 統一의 可能性을 선망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分明히 밝히고자 합니다.

東西独関係와 우리나라는 才二次世界大戦의 結果로 分断된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分断의 背景과 状況은 根本的으로 다릅니다.

즉 독일의 分断은 독일이 구주질서에 威脅이 되기 때문에 強大国들의 確固한 方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반도는 아시아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어서 分斷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에 분쟁의 요인이 될 「힘의 공백」을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긴장 완화의 정도에 따라 統一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差異点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분단의 고정화나 통일의 포기를 결과할 정책을 스스로 취한다면 그것은 말할 말해서 민족적 자살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南北間에 이루어진 역사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불가침 相互不干涉의 原則에 立脚하면서 한편으로는 南北 共히 國際 긴장완화의 정치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一方 또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여건과 기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부단히 강구하는 남북 관계를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論理는 一見 二律背反的으로 보일지 모르나 分斷 固定化를 指向하는 強大国 政治의 격랑속에서 統一에 대한 희망을 포기 당하지 않기 위한 民族史의 論理에서는 現実性과 正当性을 갖는다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対共産圈体制 開放 措置를 包含한 一聯의 새로운 外交政策이 우리의 対外関係에서 成功的 結実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友邦들의 積極的 支持와 共感 그리고 誠意있는 協助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万一 우리 友邦들 가운데 우리의 対共産体制 開放政策을 誤解하여 다른 共産国들의 対韓国政策을 考慮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北韓을 承認하게 된다면 이같은 処事는 南北間의 外交的 不均衡을 招来하게 되어 우리가 追求하는 現象維持와 互恵平等原則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政府는 이러한 問題点을 予見하여 対友邦 外交를 多角的으로 展開하는 一方 우리의 새로운 政策에 대한 民主 友邦들의 아낌없는 協助를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結 論

우제 우리는 朴大統領 閣下께서 밝히신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起点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民族을 지난 27년동안 얽어 놓았던 東西冷戦의 論理를 脱脚하고 南北間에 열린 対話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民族史 形成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対決의 論理와 対話의 論理가 併存하는 状況에서 살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東西 和解무드에도 不拘하고 이 땅에 신빙할만한 平和의 뿌리를 定着시키지 못한 状況에 처해 있읍니다.

이러한 与件에서도 우리가 南北対話를 진행시키고 또 平和統一을 위한 새로운 外交政策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두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個年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아가 10월유신 작업을 통해 다져온 국론통일 국력배양의 결과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력조직화와 능률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10月維新은 아직 1次年度도 경과하지 않았고 온 국민의 정신혁명의 活力素가 되는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에서는 바야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으나 아직 都市에까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重化学工業의 첫 関門에 들어섰으나 우리의 산업체질이 근본적으로 現代化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時日이 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국제권력정치의 거센 격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課業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새로운 決定에 따라 앞으로 外交的 側面에서는 南北外交의 自由競争時代가 到来할 것이며 各 分野別로 南北의 優劣을 판가름할 体制競争이 陽性化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 싯점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세가지로 집약시키고 싶읍니다.

첫째는 모든 形態의 体制競争에서 勝利해야 한다는 国民的 正当性을 体質化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南北関係의 展開를 方三者의 立場에서 방관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外交的 側面에서는 総力外交時代에 적응할 知的 構造를 가다듬고 政府의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놓고 国民的 합의기반을 넓히는 국론선도의 역군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힘의 철학을 신봉하는 共産主義者들과 대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平和와 統一을 同時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력배양이 첫째 요건임을 확신하고, 우리 生活의 모든 영역에서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에네르기가 낭비됨이 없이 국력배양의 요소로 전환되도록 「국력배양의 철학」을 신념화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철학은 현실적으로는 10月維新課業의 성공적 완수로 구체화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지금 이 싯점만큼 政府와 知識人 그리고 全体国民이 国家的 状況에 대하여 共感과 信頼를 돈독히 해야 할 때는 없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동일한 상황을 동일하게 의식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内外情勢에 対処한다면 우리 民族 共同의 目的인 平和와 統一은 이 같은 총화의 구조가 획득해야할 당연의 대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지원을 바랍니다.

1973年 6月 29日

国 土 統 一 院 長 官

金 永 善

統一問題學術會議

南北對話와 國論統一

柳 基 春

全南大學校 總長

1973年 6月 28日～30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옛날에는 사랑하는 公主가 시집을 갈때 領土의 한 조각을 떼어주는 임금님이 있었다. 그러나 近代民族国家 成立以後에는 国家와 領土와의 関係는 個人과 그 身体와의 関係와 같이 되었다.

個人이 그 身体의 一部分을 떼어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国家도 그 領土의 一部分을 떼어 줄 수 없고, 個人이 그 身体가 病들거나 傷処를 입으면 기어이 그 病을 고치고 傷処를 아물게 하려는 것과 같이, 国家도 그 領土가 病들거나 傷処를 입으면 그 病이 낫고 傷処가 아물도록까지 必死的인 努力을 継続한다.

우리는 36년간 病들었던 領土를 聯合軍의 勝利로 되찾았으나, 美.蘇의 国際勢力政治는 우리의 領土에 또 다시 傷処를 주었다. 38線으로 또 休戦線으로 国土가 両断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입은 傷処를 아물게 하려는 努力에 못지 않게 이 傷処를 期必코 아물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傷処를 아물게 하는 努力을 展開함에 있어 어떻게 그 傷処가 생겼는가를 먼저 考察할 必要가 있다. 西紀 668年에 始作되어 935年에 全韓半島는 単一政治権力統治下에 들어 가장 純粋한 単一民族으로서 現今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祖上들은 間或 外侵을 받았으나 1910年에 이르기 까지 独立을 維持했었다.

1910年에 이르러 우리는 独立을 잃었다. 그 責任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萬一 우리가 世界的인 視野와 国家的인 展望을 가지고 国論을 統一하고, 国力을 조직하여 有備無

思의 態勢를 갖추고 国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対処하였던들, 우리는 独立을 維持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日本帝国主義의 暴悪함을 悲憤慷慨함으로서 独立을 잃은 것에 対한 責任을 免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独立을 잃지 않았던들 1945年 9月에 우리땅이 두 조각 날 理由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땅에 傷処가 난 根本原因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自覚하고, 世界的인 視野, 国家的인 展望을 뚜렷이 갖고 国論을 統一하고 国力을 조직하여 極大化하고 有備無患의 態勢를 갖추어, 国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対処하는 길이 우선 国土統一을 為한 第一条이다.

南北이 생겨난 環境을 究明해 보자.

Yalta에서 38線이 그어졌다는 것은 臆測이다. Yalta에서는 美英中蘇의 信托統治가 Roosevelt와 Stalin間에 諒解되었을 뿐이다.

美側의 Yalta会談準備文書에도 38線은 없다. 韓国은 独逸과 달라 協商 table에서 分割占領이 論議될 程度의 注目을 받지 않았었다. 우리에게 偉大했던 愛国闘士들의 影響이 韓国을 国際的 忘却으로부터 救出할 程度는 못되었던 것이다.

萬一 38線分割이 政治協商에서 이루어 졌다면 伝統的 行政区域이 考慮됨이 없이 또 옹진반도를 孤立시킨 韓半島의 가장 幅넓은 38線에서 分割線이 그어진理가 없다. Yalta에서 38線이 그어졌다면 四個国 信托統治의 諒解는 不必要하다.

1945年 8月 7日 広島에 原爆이 投下되었다. 8月 9日 蘇聯

은 対日 宣戦布告를 했다. 8월 10일 長崎에 第2原爆이 投下되고 소련軍은 만주에 進撃했다. 8월 11일 日本은 無条件 降伏을 受諾했고, 8월 13日부터 소련軍은 韓国땅에 進撃했다.

12萬5千이 抵抗없이 南下,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100mile인 元山땅을 딛었다. 無条件 降伏하겠다는데 事前 協定이 있었으면 그렇게 서둘것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때 美軍은 서울까지 飛行거리 850 mile인 Okinawa에 있었다.

韓国占領보다 重要한 日本占領 任務가 있다. 蘇聯軍은 疾風과 같이 쏟아져 내려 왔다.

協定없는 地域에 既成事実을 拡大시켜 간다. 이 때 美合同参謀部이란 無能한 大領이 소련의 全韓国占領을 막고자 韓国에 있는 日本軍의 武装解除를 38線 南北에서 分担하자는 案을 起案, 合参의 検討를 거쳐 8월 16일 트루만大統領의 決裁를 얻어 Stalin에 提案되어 無修正 受諾되었다. 美軍은 頑強한 日本軍과 1347일간 싸웠고 소련軍은 敗走하는 日本軍을 6일간 追撃했다.

代価가 크지 않은가. 下院 議院会에서 한 의원이 왜 全韓国의 全日本軍을 우리가 武装解除하겠다고 말했느냐 책망했지만, 그 때는 49年의 일이다. 美国은 큰 힘을 가지고도 愚鈍하게 소련의 有利한 立場을 보아 주었고, 소련도 有利한 立地이지만 美国의 意思를 안 따르기엔, 너무 염치가 없었던것 같다. 無慈悲한 国際勢力政治가 美蘇両国에 依하여 韓国에서 賢明하지 못하게 発揮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認識하여야 할 것은 美国이 소련에게 全韓国을 내

争지 않겠다는 意志다. 소련의 全韓半島占領을 防止할 目的이었다는 美合同 參謀部의 純眞한 意図를 諒解하더라도, 韓半島에 韓民族의 參與없이 伝統的인 行政区域의 參酌도 없이 分割線이 그어진 것은, 韓半島에서 앞으로 国際勢力均衡이 無慈悲하게 維持될 것을 暗示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6.25戦争 挑発은 無知의 所産이다. 이 無知한 行為를 北韓은 우리가 挑発했다고 主張한다.

우리는 이 놀라운 主張을 다음과 같은 事実을 지적함으로써 対答에 代하고자 한다.

6.25動乱開始까지의 韓半島 南北에서의 軍事情勢는 大略 다음과 같다. 北韓 共産軍은 1948年 2月 8日 創設되고, 소련占領軍은 同年 12月 撤収하고 軍事顧問団이 残留했다. 6.25直前의 総兵力은 13萬5千, 戦車 150台, 砲 600門, 空軍 196機, 歩兵 8個師団 未充足歩兵 2個사단, 2個 独立聯隊 1個機甲旅団과 機甲聯隊 其他 5個 警備旅団과 領内治安部隊가 있었다.

韓国은 46年 1月 警備隊로 発足 47年 1月 約 5,000名, 47年 4月 10,000名, 47年 7月 1萬5千名, 48年 8月 政府樹立과 同時에 従前의 8개 聯隊를 5개旅団으로 改編하고 国軍으로 改称, 49年 5月에는 5개師団과 1개旅団으로, 49年 8月에는 8개師団으로 増強되었고, 6.25直前의 総兵力은 歩兵 8개師団 9萬8千名 装甲車 27輌, 砲 89門, 軍用機 32台였고 美軍은 1946年 6月末 撤収하고 顧問団 約 5,000이 残留했다.

北韓 共産軍은 最初부터 機動作戰型으로 最新式戰車, 裝甲車, 砲等을 大量 保有한데 比하여, 韓国軍은 輕裝備로 出発하였던 故로, 裝備가 共産軍에 比하여 極히 貧弱했었고 裝甲車는 있어도 戰車는 単한台도 없었다. 이러한 事実로 보더라도 共産軍의 武力南侵 計劃은 相当時日前부터 計劃되어, 一挙에 全韓国領域을 席巻할 수 있도록 準備되어 있었고, 開戰後의 進撃状況이 그것을 証明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韓国側의 防備는 너무 허술했던 것이다.

北韓을 변호하는 어떤 外国記者는, 이 南韓의 허술함이 北韓의 南侵을 誘発했으니, 6.25는 南韓이 挑発한 것이라 했다. 萬一 이것도 主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는 허술함으로써 挑発者의 누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戰爭도 政治目的수행의 手段이라고 한다면, 다른 政治行為와 다름없이 그 結果에 依해서 評価되어야 함은 当然의 論理가 있다.

6.25는 白衣民族에 未曾有의 惨劇을 経験케 하였다. 수백만의 同族相残으로 韓半島를 피바다로 만든 惨劇이었다. 이 惨劇의 設計者는 5千萬의 이름으로 審判되어야 한다 그 審判이 이루어지면 韓半島는 統一이 될 것이다.

近代民族国家形成以後의 한 民族의 同族相残은, 無智와 落後의 所産이며, 6.25와 같은 大規模 同族 攻撃行為는, 狂信의 結果로 判断하더라도, 결코 民族史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朴正熙大統領은 이 審判을 歷史에 맡기기로 했다. 朴正熙大統領은 1970년 8월 15일, 北韓側에 対하여 武力統一 手段을 抛棄하고,

平和的인 競爭을 提議했었다. 이것은 1945년 以後, 興奮과 期待, 希望과 失望과 憤怒의 소용돌이속에서 헤매어 왔던 5千萬 民族에게, 同族相殘이 아닌, 生存과 繁榮의 길을, 提示하고, 막혔던 숨을 터놓은 民族生存의 提議인 것이다. 우선 分斷과 相克의 狀況을 相對의 實存을 認定함으로서, 克服한 것이다.

이 分斷의 相對의 實存의 認定은 外國人의 눈에는 극히 当然한것 같아도 20餘年의 相克의 狀況을 참작하면 一大 政治的 勇斷이요 自信과 使命意識의 所産인 것이다.

이 8.15宣言의 精神이 南北赤의 対話로, 7.4共同宣言으로, 南北調節委로 具体的 接触을 가져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国土에 상처가 난 根本原因은 우리에게 있고, 国際勢力政治가 당돌하게 38線을 그었으며, 이 International Powor Politios의 意志를, 無知한 者가 건드려, 온 겨레가 더 큰 상처를 입었으나, 8.15宣言이 흩어진 民族에게 갈 길을 가리켰다고 했다. 그러면 조국의 現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統一과 光明과 繁栄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첫째 同族相殘을 막아야 한다. 이제 6.25가 다시 나면, 双方의 火力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韓半島는 잿더미가 되고, 하늘도 다시는 우리를 들보지 않을 것이며, 自由는 또 다시 우리를 찾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同族相殘을 막을 것인가.

우리의 民主体制를 再編成하여야 한다. 우리는 古典的 民主主義를

実験하고 있을 処地가 못된다. 우리는 民主社会를 固守하기 위하여, 国民力量을 組織化하여 国力을 増大시키고, 새마을을 育成하여 国民의 同質性을 具現하고, 国民総和를 이루어 国論을 統一하고, 強力한 領導力下에 国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対処할 수 있어야만 生存이 可能하고 이 땅에 또 하나의 戦火를 막을 수 있다.

여기에 10月維新의 当為性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強力한 国力을 바탕으로 南北対話에, 対話없는 対決에서 対話있는 対決에, 臨해야 한다. 南北対話에서 우리들은 軍事的 緊張완화로 熱戦을 막고, 民族의 異質化의 固着을 우선 防止하는 努力을, 忍耐心있게 展開하여야 한다.

性急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南北의 숨통을 건드리지 않는 分野부터, 即 非政治的 分野부터 接触을 해보아야 한다. 南北의 相異한 政治条件下에서 民族的 相互理解가 可能한가 実験을 해보아야 한다.

感傷的 無条件 統一論은 또 하나의 内乱을 自招할 것이다. 北측에서 政治協商을 提議한 것은 이러한 見地에서 性急하고 誠実하지 못하다.

우리의 숨통을 건드려 보자는 意図인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対話가 깨어질 것이 아닌가? 그들은 南北 対話로 対南戦略의 合法투쟁化를 노리고 있다. 우리의 国論分裂을 誘導하려 하며, 国際機構 加入으로 두個의 韓国을 企図하고 있고, 如前히 各種의 挑発行為를 恣行하고, 単独戦斗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韓国을 둘러싼 国際情勢는 힘의 限界性에서 오는 共存의

方向으로, 実利追求와 勢力均衡의 維持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国際的 環境下에서 部分的, 軍事的 優位追求에 専念한 北쪽에 対하여 政治的 対決과 経済的 競争의 新局面, 即 全面対決의 局面으로 몰고가야 한다. 維新과 새마을이 成功的으로 成就되면 우리에게 有利한 局面이다.

우리의 힘이 強力한 領導力하에 組織되고, 좀 더 社会的 同質性을 갖추게 되면, 分明히 우리는 優勢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러한 与件의 成熟과 더불어, 北쪽의 숨통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対決意識을 漸次 競争意識으로 몰고 가며는, 우리는 戰爭없이 統一의 길로 共進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対決과 競爭에서 正正当当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속일 수도 없고 또 우리도 그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民族歷史의 正統性을 등에 업고 正正当当할 것이다. 그러면 이 全面対決과 競爭에 있어서의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우리는 果然 一時的인 感傷이 아니라, 真正 民族을 이어가는 生命으로서 祖国統一을 為하여 일하고 있는가. 이 땅에 民主主義社会를, 自由와 平等을, 具現하기 為한 各自의 責任을 다하고 있는가.

自律的으로 이러한 責任을 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他律的으로라도, 全国民이 이러한 隊列에 서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只今까지 自己自身은 아닌 누군가가 아마 美国이 우리를 지켜 주리라고 막연히 期待하고, 独立国民이라 외치면서, 마음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괴로운 일은 "하여간 나만 빼놓고 해줘"하면, 果然 그 괴로운 일을 맡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萬一 우리가 이러한 狀況이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自主自立的이요 独立国民의 資格을 가졌단 말인가.

누군가가 民主社会를 具現해 주고, 나는 그저 民主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인가.

아니다. 責任을 分担하여야 한다. 우리의 취약点은 바로 이 責任分担의 問題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知識人으로서, 또 大学人으로서, 이 責任分担에 誠実하였는가 생각해 보자.

동네 집에 불이 났을 때,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傍観者이다. 불이 났는데 불타는 집을 놓고, 불끄는 方法을 熟議한다고 時間을 보내는 것도, 慎重이라 할 것인가.

초여름에 단감이 떫다고 함도 批判이며, 익지 않은 단감을 떫다고 批判하면, 그 단감이 빨리 익을 것인가. 우리는 300불짜리 국민이다. 3,000불짜리가 아니다. 社会는 어느 特定機能의 成長만으로 前進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의 発展에 批判機能은 必須이다. 또 이 機能은 知識人을 놓고 다른 사람이 代行하기 어렵다. 그러나 創造와 前進과의 調和를 잃은 批判機能発揮는, 많은 경우에 妨害가 되기 쉽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最近 10年 우리나라는 많은 発展을 했고, 領導者나 主導者들의 苦生도 많았다. 우리는 이에 対해서 拍手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知識人이나 大学人은 너무 傍観하지 않았는가 反省해 볼 또 하나의 契機가 왔다.

朴正熙大統領은 지난 6월 23일,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関한 特別声明을 했다.

"現実을 直視하고 平和를 이 땅에 定着시킴으로서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기필코 이룩하자"고 했다.

名分의 時代는 가고 実利의 時代가 왔다. 우리만 隊列에서 빗어나면 또 다시 落伍者가 되는 것이다. 6.23特別声明은 対外的으로는 自信과 矜持를 가지고 널리 門戸를 開放하고, 国際社会에서 自主, 能動的으로 対処하고 対内的으로는 南北의 境界를 두고, 서로 銃질 하지 말고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世界舞台에서 尊重을 받는가 競争해 보자. 등에 銃질을 하려 하지 말고, 正正当当하게 全面対決해 보자, 감추지 말고 내놓고 겨루어 보자는 局面을 展開시킨 것이다. 싸움에 置重했던 北쪽은 国民을 強制할 従来의 根拠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등에 銃질을 하려 하지 않고 正正当当하게 全面対決을 계속하는 동안에, 対決意識을 競争意識으로 転換시키게 되면, 우리는 統一路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対決意識에는 憎悪가 残存해도, 競争意識에는 그것이 減少되어 갈 것이며, 認定과 讃揚의 心理도 発生할 것이다. 우리는 千年의 中央集権歴史를 가진 가장 純粋한 単一民族이다. 30年이나 50年이 이 歴史를 抹殺할 수는 없다.

周辺情勢가 우리의 統一을 願치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経験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期必코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民族의 正統을 이어 받았고 北쪽은 民族의 正統과 断切하여 더 바르고 萬百性이 잘 사는 社会를 建設한다고 主張해 왔다. 그러나 이 競爭에서 우리가 더 바르고 더 잘 살 수 있는 社会라는 것이 반드시 立証될 것이다.

그러면 民族史에서 断切된 北韓은 사라지고, 民族史를 이어 받는 北韓이 蘇生할 것이다. 그러면 統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管掌하는 領域안에 排他的 統治組織과 統治権力이 있고, 国際的 承認을 받아 国際聯合에 加入되더라도 그러한 状況을 暫定的인 것으로 보고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北韓을 国家로 認定하지 않는 것은 民族史의 正統을 이어 받은 우리의 품 안에, 언젠가는 北韓同胞가 안겨 올 것이라는 우리의 確信과 自信의 表現인 것이다.

事実 6.23特別声明은 民族의 分断의 認定이 아니라, 오히려 民族의 統合을 半가량 이룬 것이다. 서로 存在하지 않는다 하고 등에서 銃질하는 兄弟는 兄弟가 아니다. 그러나 銃을 놓고 잘 사는 競爭을 始作한 兄弟는 이미 半가량 兄弟이다. 그동안에는 서로 웃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우리의 이러한 뜻을 北쪽이 理解하게 되어야만, 6.23特別声明은 実効가 있다. 그러나 北쪽은 国際社会의 糾弾을 받을 일은 저지르기 어렵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 平和共存안에서의 全面競爭提議

를 받아들여야만 北쪽은 그가 저지른 6.25의 罪過를 多少나마 씻게 될 것이다. 分斷되었으나 서로 侵犯하지 않는 상태에서 和身의 全面競爭을 함으로서 언젠가 統一이 될 民族의 力量의 最大增加를 우리는 期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끈질긴 努力으로 우물안의 개구리가 大河에 나오게 되면, 自己가 얼마나 적은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6.23特別声明은 벽뒤에 숨어서 銃을 겨누고 있는 동생을 바깥社会로 끌어 내어 自己自身의 어두움을 깨닫게 하는 조치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期待가 쉽사리 短時日안에 成就될 것을 우리는 바라서는 안된다.

実力과 忍耐와 努力이 随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競爭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民族史를 이어 가는 生命의 口実을 하게 된다. 이 口実을 다 하려며는 먼저 우리 知識人과 大学人부터 그 자세를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3,000불짜리 흉내를 가장 많이 냈던 우리부터 国籍을 되찾고 自己責任의 分担에 誠実하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6.23特別声明으로 우리의 課題는 単純하게 되었다. 緊張의 緩和는 勿論 絶対로 안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生命을 걸고 누구의 목을 따러 가야하는 判局은 지났다. 領導者를 받들고 一糸不乱 自己職責을 完遂하면, 国力이 튼튼해지고, 이 競爭에 이기면 우리가 바라는 自由民主 統一祖国이 이 땅에 具現되는 것이다.

누구나 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特히 南北의 経済的 競爭은 장

차 経済的 交流를 促進할 不可避한 状況을 낳고 올 것이다. 이 状況에서 우리가 밀리면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도 밀리게 된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한다.

統일하는 싸움에 못지 않게 또 하나의 어려운, 거서는 안될 싸움인 것이다.

그러면 왜 6.23特別声明이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도 있을 법하다. 6.25의 상처가 그 原因의 하나요. 冷戦이 그 둘이요. 또 国力을 組織化못하고 国論이 分裂되어 領導力의 構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平和的인 全面競爭을 하려 하면 先行条件이 어느 程度는 充足되어야 하지 않은가. 実利追求가 国際的 脫이데오로기性向을 招来하고, 現状安定을 希求하게 되었으며, 새마을운동과 10월維新이 이를 可能케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成就하여 同質社会를 갖추고, 同質社会를 이루어 民主政治의 基盤을 닦고 国論을 統一하고 10월維新을 完遂하여 領導力을 構築하고, 国力을 組織하고, 培養하여, 南北対話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이 民族에게 後見의 時代는 갔다. 自主力量의 時代가 온 것이다.

南北対話에는 하나도 힘, 둘도 힘이다. 千萬의 方策도 힘없이는 無策이 될 것이다. 過去에는 武力만 있으면 우선 되었다. 여기에 過去에 比해서 国論統一의 緊切함이 더하게 된 것이다.

国民 하나 하나가 戦士가 되어야 하는 全面競爭이 展開되며는 国内의 異質性을 最少限으로 減少시켜가야 한다. 이것은 二重의 努力을 要求한다. 왜냐하면, 全面競爭이 되며는 従前의 部分対決때 보

다는 参与의 幅이 훨씬 增大하기 때문에 国論統一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全面競爭에 있어 同質 福祉社会의 具現은 時急한 課題이다。 国民의 異質性으로 오는 마찰은 国論統一에 莫大한 支障을 주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共産圈에게 나라를 開放할 때 우리 体制内部의 構造機能을 어떻게 調整한 것이며 새로운 外交政策은 어떻게 樹立할 것인가도 慎重히 考慮되고 広範한 国論의 뒷바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北쪽이 実利追求와 脫이데오로기로 平和共存을 불어대면 우리 知性人들은 従前의 傾向으로 보아 脫民族主義가 되어 "코스모포리탄"이 되어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全面競爭은 누구보다도 知性人을 為한 対決이다。

知性人의 自由希求는 一生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 知性人과 大学人이 先頭에 서면 国論統一에 絶対的 役割을 할 것이요、 勝利의 날이 빨라질 것이다。 萬一 그들이 傍観하면 싸움이 어렵게 된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知性人과 大学人의 감상적인 입에 붙은 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 祖国의 歷史的인 現実을 똑바로 認識하고 그 現実을 肯定하는 勇気를 갖고 世界的인 視野와 国家的인 展望을 가지고 実践的인 参与로 国論統一의 中枢가 되어 祖国統一을 為한 가장 큰 責任을 우리가 分担하고 栄光된 民主統一 祖国을 待望하자。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

'73 韓國統一會議

特 別 講 演

"南北對話와 大學의 使命"

1973. 6. 29

愼 道 晟

(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長)

南北対話와 大学의 使命

愼 道 晟

Ⅰ. 大学에 있어서의 統一問題 研究

冷徹히 観察할 때 韓半島의 統一은 많은 提案과 努力에도 불구하고 豫見할 수 있는 将来에 実現되기는 어려운 問題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統一問題는 学問的인 検討와 꾸준한 研究 그리고 科学的인 設計를 필요로 하는 課題인 것이다. 統一問題에 관한 大学 내지 大学人의 使命은, 目前의 利害関係에 쫓기는 臨機応変的 対応策이나 常識的이고 皮相的인 俗論을 超越하여, 高次元的인 統一理念과 遠大한 "비젼"위에 선 恒久的 価値를 지닌 統一構想을 提示하는데 있다고 해야 한다.

大学社会에 있어서의 統一問題 研究는 그 課題 자체가 아무리 実践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方法은 어디까지나 厳正한 客観性과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 "아카데믹"한 接近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統一問題 研究를 하나의 体系化된 学問으로서 定立하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特定한 学科에만 属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学問分野에 関聯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그것은 일종의 inter-

disciplinary한 綜合科学의 性格을 띤 것이므로, 여기서 "統一学"에 대한 関聯 諸学問의 意義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南·北韓을 隔離시키고 있는 根本的 要因은 무엇보다 両地域을 支配하는 哲学의 差異에 있다. 우리들의 価値観·世界観과 相反되는 辯証法的 唯物論과 階級闘争 哲学은 그 自体 하나의 迷妄과 狂信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克服하고 남을만한 우리 自身의 統一哲学의 確立은 모든 統一問題 研究의 基本이 된다. 또한 共産主義 "모랄"의 虚偽性에 대하여 自由롭고 創造的인 倫理体系의 確立은 不可欠함으로, 이리하여 哲学과 倫理学은 다 統一問題 研究와 不可分의 関聯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韓国 民族의 統一과 分断의 歷史, 韓国 民族主義의 形成과 発展過程을 回顧하는 것은 将来할 統一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널리 世界 各国, 各 民族의 離合集散의 歷史를 比較 研究하는 것도 우리의 統一問題 研究에 많은 参考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韓国의 国土両断과 그것의 固定化가 第2次 世界大戦 이후 強大国간의 "파워·폴리틱스"의 所産이었던 만큼 国際関係의 変遷은 韓半島의 統一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史学 그중에서도 外交史学이 統一問題 研究에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다.

政治学은 곧 統一問題 研究의 核心的인 分野이다. 現存하는 韓民族의 分裂이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의 両極化에 뿌리박고 있는 만큼 現代 政治思想에 대한 깊은 理解와 그것의 流動性·可変性에 대한 洞察力 있는 把握은 무엇보다 緊要한 課題이다. 政治的 統合의 可能性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먼저 南·北韓의 統治機構와 権力構造를 熟知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두 地域의 社会·経済体制와 住民의 生活様式·思考類型의 差異, 그 指導者들의 "퍼스낼리티"와 行態의 "패턴"을 比較 研究하는 것도 統一을 위한 阻碍要因과 促進要因을 糾明하는데 必須的이다.

이리하여 経済学·社会学·心理学이 모두 統一問題 研究와 密接한 関係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経済学은 完全統一 以前에 있어서의 南北 経済交流의 可能性과 具体的 方法을 探求하기에 매우 緊急性을 띠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法学과 行政学은 両地域의 法律制度와 行政組織의 比較研究를 통해서 統一에 随伴되는 国際法 및 国内法上의 問題点을 밝히고, 統一後 北韓地域에 残存하는 共産主義的 法体系와 行政機構를 民主化하는 方案을 準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教育学은 統一을 指向하는 韓国教育의 理念과 方向을 設定하고, 자라나는 世代의 統一意慾을 북돋우어 주기 위한 教育方案을

을 세우며, 北韓의 教育制度와 共産主義 人間型의 改造問題 등을 研究해야 한다. 그밖에 韓国民族의 人種的 単一性을 밝히기 위한 人類学, 地政学的 単一性과 天然資源의 南北 補完性을 究明하는 地理学이 필요하고, 文学과 芸術도 統一의 基準이 될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堅持하며, 固有의 文化伝統을 継承·発展시킨다는 意味에 있어 統一問題와 결코 無関하다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自然科学과 技術工学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南·北韓의 比較研究가 절실히 要望되고 있다.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南北간의 非政治的 交流의 가장 重要한 部門이 될 科学·技術交流의 準備를 위해 바야흐로 目前에 臨迫한 時急한 課題로 抬頭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大学에 있어서의 統一問題 研究는 以上과 같은 全 学問分野의 綜合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결코 単一한 学科나 少数의 専門学者에만 依存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統一問題 자체가 全 民族的·全 国家的인 課題인 것과 마찬가지로 統一問題의 研究도 全 学問的·全 大学的인 課題이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大学을 網羅한, 그리고 모든 専攻分野의 研究를 集大成할 수 있는 하나의 큰 綜合的인 統一問題研究機関의 設置가 바람직하다. 本人은 이와같은 綜合的 統一問題研究機関이

언젠가는 誕生할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우선 거기에 이르는 過程에 있어 오늘의 이 모임과 같은 여러 大学人의 共同討議가 우리의 統一問題 研究를 위한 여러 学問分野 사이의 対話와 協調를 촉진하는데 있어 매우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음을 指摘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 韓国統一의 理論的 基礎

本人이 主宰하는 嶺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에서는 1969年 以来 韓国統一의 理論的 基礎를 構築하려는 努力을 계속하여 왔다. 처음 얼마동안은 統一問題 研究의 方法論과 科学的인 概念規定에 注力하였는데, 統一의 根拠로서의 民族単一性에 관해서는 種族과 言語와 歷史의 共通性을 単一民族의 概念要件으로 認定한 反面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의 単一性을 排除하는 立場을 取하게 되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南·北韓은 이미 単一한 民族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当為로서의 統一論議는 成立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実的으로 南·北韓 사이의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의 差異가 韓民族의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要因임

은 否認할 수 없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異質的인 体制간의 統合을 可能하게 하는 条件을 摸索하여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援用한 것은 西欧에서 発達한 収斂理論 (Convergence Theory) 과 機能主義 (Functionalism) 理論이었다. 収斂理論은 異質的 体制 사이의 接触의 結果는 "最適条件" (Optimum) 으로의 収斂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南·北韓 간의 接触·交流를 통한 統一接近에 自信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収斂理論은 接触·交流의 方法을 提示해 주지는 않는다. 機能主義 理論은 바로 이点을 補完해 주는 것이니, 그것은 "유럽共同体" (EC) 形成過程에서 그 有効性을 実地로 立証한 것이었다. 즉 西欧 諸国은 오랜 동안의 "유럽聯邦" 내지 "유럽合衆国" 実現에의 꿈에도 不拘하고 政治的 統合은 아직도 遙遠한 反面, 経済·文化·社会와 같은 非政治的 機能分野에 있어서는 그 統合過程이 매우 成功的으로 推進되어, 오늘날 거의 한 나라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繁栄된 "유럽共同体"를 形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南·北韓 간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의 "統一" 概念 속에서 "政治的 統合" (political integration) 과 "機能的 融合" (functional association) 을 区別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前者가 南·北韓의 완전한 政治的 単一化를 의미한다면, 後者는

非政治的·非〃이데올로기〃的인 여러 機能分野에 있어 南北 住民간의 接触·交流를 拡大함으로써 単一民族으로서의 経済的·文化的·社会的 同質性을 점차 恢復해 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現時点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統一努力의 目標는 바로 이러한 〃機能的 融合〃을 적극 推進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帰着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面에서는 韓国統一을 위한 段階的 接近의 理論과 一致하는 것이다. 일찌기 〃브르제진스키〃教授는 統一過程의 4段階説을 主張한바 있거니와, 不明確하고 流動的인 韓国統一의 将来가 그처럼 明確한 段階的 過程으로 区分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異質的이고 極度로 敵対的이었던 南·北韓関係가 最終的인 統合에까지 到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中間段階를 거쳐야 할 것만은 分明하다. 그것은 적어도 완전한 断切과 極限的인 対立状態에서부터 出発하여, 조그만한 門戸의 開放으로 接触과 対話를 시작하고, 그 対話를 통해서 極端한 緊張状態를 약간이나마 緩和하며, 점차 接触·交流의 幅을 넓혀 가는 동안에 相互理解를 増進하고, 그리하여 共存関係의 樹立과 平和的 競争, 나아가서 各分野의 協力과 共同事業을 拡大하며, 그럼으로써 民族同質性의 漸進的인 恢復과 体制間의 接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여러 段階를 거쳐야

만 할 것이다.

"機能的 融合"의 理論은 바로 이와같은 過渡的 段階에 相応하는 것이다. 이러한 過渡期가 과연 얼마나 길며, 어떠한 経緯를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豫測할 수도 断言할 수도 없다. 어쩌면 種族은 다르지만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의 同質性 위에 서있는 "유럽共同体"보다 種族은 하나이지만 "이데올로기"와 政治体制가 判異한 우리의 경우가 完全統合에 이르기까지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意味에서 韓半島의 統一은 극히 長久하고 緩慢한 過程으로 想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韓国統一의 前途를 반드시 그처럼 悲観的으로만 볼 必要는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機能主義 理論에 包含된 融合의 "伝播機能"(Spill-over Capacity)이 우리의 경우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작은 門에 있어서의 接触·交流의 進展은 그 波及効果로 말미암아 다른 보다 큰 分野의 接触·交流를 불러 이르키게 되고, 이러한 作用의 連鎖反応의 결과 南北간에 広範囲한 接触·交流와 協力関係가 加速

度的으로 拡大되어 가면 그것은 두 異質的 体制의 相互接近을 可能하게 하여, 마침내 政治的 統合에의 길을 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観点에서 지난번 第3次 南北調節委員会에서 우리측이 提議한 南北 社会의 "完全開放"案은 肯定的으로 받아 드려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機能的 分野의 開放이어야 하고, 또 接触·交流의 方式도 政府官僚나 政治人들의 交流보다는 非政府間(non-governmental)의 각종 民間 機能団体에 의한 接触·交流가 더욱 効果的일 것이라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Ⅲ. 새로운 統一政策과 知識人의 使命

以上 보아 온 바로써 統一에의 過程은 必然的으로 南·北韓의 "競爭的 共存"의 段階를 거쳐야만 한다는 点은 하나의 論理的 帰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南北対話의 実際가 対決과 共存, 競爭과 協力을 混合한 것과 같은 錯雜한 様相을 보여 왔기 때문에 現段階에 있어서의 南·北韓 関係의 性格이 明確하게 浮刻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混沌状態에 終止符를 찍은 것이 바로 6月 23日의 大統領特別声明이다.

6·23特別声明은 分明히 하나의 "競爭的 共存"宣言으로 把握될 수 있다. 南·北韓의 相互 内政不干渉을 要求하고, 北韓의 国際機構 参与와 "유엔"에의 南北 同時加入에 反対하지 않을 뜻을 表明한 것 등이 그러한 面貌를 나타낸 것이며, 이로써 韓国은 종래 堅持하여 오던 単独代表権과 "할슈타인"原則을 깨끗이 清算하고, 하나의 政治的 実体(Political Entity)로서의 北韓의 存在를 現実化한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南·北韓이 対等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多極化된 国際環境을 헤엄쳐 나가기 위한 "競爭的 共存"時代의 開幕을 告하는 信号弾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宣言과 韓半島의 統一의 将来에 대한 関聯性에 있어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同 特別声明 第6項에 表示된 門戸開放 政策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느 程度의 開放体制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것은 自由陣営 안에서의 일이었고, 共産主義 世界에 대해서는 엄격히 門戸를 閉鎖해 온 것이 事実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理念·体制를 달리하는 国家들"에 대해서도 門戸開放을 宣言함으로써 韓国은 脫"이데올로기" 時代에 適応할 수 있는 柔軟性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韓国의 生存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平和的인 統一이 世界的 規模에 있어서의 冷戰構造의 解体 위에 期待될 수 있다는 点에서 하나의 重要한 前進이라 해야 한다.

더우기 이러한 門戸開放 政策이 北韓의 極端한 閉鎖性을 解消하고 그들을 開放된 世界로 誘導해 내는 促進剤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重要性은 培加된다. 北韓의 開放化는 그 頑固한 教条主義 体制에 変化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決定的인 手段이다. 그러므로 해서 北韓을 国際社会로 끌어 내고, 그들을 넓은 世界舞台에 登場시키는 것이 곧 우리가 念願하는 平和的 統一에의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収斂理論 (Convergence Theory) 의 原点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異質的인 体制 사이의 接触은 그 双方에 대해서 衝撃 (Impact) 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주는 衝撃의

程度는 開放体制 보다 閉鎖体制 쪽이 더욱 크게 마련이다. 바꾸어 말하면 異質的 体制간의 接触·交流의 結果는 항상 開放体制 쪽에—그것이 단지 開放的이라는 理由만으로도 有利하게 作用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開放体制는 이미 넓은 世界와의 接触·交流를 통해서 最適条件(Optimum)으로의 収斂을 겪어 온데 대하여, 閉鎖体制는 그러한 経験을 全혀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주 적게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相対하고 있는 北韓은 現代 世界에서 가장 閉鎖的인 全体主義 体制下에 있다. 그것은 같은 共産主義 陣営 안에서조차 그 "兄弟国"들과의 사이에 帳幕을 쳐놓지 않고서는 自体를 維持하기가 어려울 만큼 閉鎖的이다. 이러한 体制에 대해서는 그 帳幕을 제치고 自由의 빛을 비쳐 준다는 것은 곧 "革命的"인 変化의 始発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体制変化만이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可能하게 하는 唯一의 길인 것이다.

以上의 모든 検証을 通観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理論的 作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最近의 事態発展은 더욱 더욱 그 真価를 돋보이게 해 주고 있다. 真理는 비록 一時的으로 闇黒에 가리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価値를 損傷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꾸준한 学問的 努力이 한때 正当한 評価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疎外感이나 挫折感을 느낄 必要는 없다. 그것은 마치 구름 속에 暫時 들어 있는 太陽과 같이 얼마 안가서 燦然히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指導的인 知識人으로서 国家的·民族的으로 負荷된 使命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 時代를 사는 韓国人으로서 同族相残의 悲劇의 再現을 막고, 統一祖国의 成就에 最善을 다함으로써 民族의 矜待와 栄光을 되찾는 崇高한 事業에 앞장서는 일이다. 本人의 研究所에서는 이미 오래 前부터 韓半島의 平和確保를 위한 가장 合理的인 方案으로서 非武装地帯(DMZ)를 国際平和地帯(IPZ)로 転換할 것을 提案한 바 있다. 또한 韓民族의 窮極的인 統一은 南北의 体制的 接近에 의해서만 可能하다는 우리의 信念에도 変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北韓에 대해서 그 体制変化를 促求할 뿐 아니라 우리 自身의 体制에 대해서도 不断의 改革이 加해져야 할 것을 믿는 바이다.

統一問題學術會議

南北對話가 國民與論에 미칠 影響

鄭　亨　壽

東亞日報 安保統一問題 研究所

1973年 6月 28日～30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1. 問題의 提起

南北対話는 南北赤十字会談 南北調節委員会의 두개의 채널을 통해 進行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南北赤十字会談은 六차례의 本会談을 南北調節委員会는 三차례의 本会談을 가졌다.

南北赤十字会談은 一九七二年 八月 十二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총재(당시)가 「南北으로 흩어진 一千万 南北離散家族들의 実態를 確認하고 소식을 알려주며 面会를 알선하는 家族찾기 運動을」을 北韓赤十字社에 제안하는 한편 그 具体的인 方案 協議를 위해 오는 十月안에 南北韓赤十字 代表間에 予備会談을 열것을 正式으로 提議 北韓赤十字社에서 八月 十四日 北韓赤十字社 中央委員会 委員長 孫成弼의 이름으로 大韓赤十字社의 家族찾기運動을 환영하며 九月중으로 会談을 갖자고 回答해옴으로써 시작된 것이며 南北調節委員会는 一九七二年 七月 四日에 発表된 南北共同声明의 「쌍방은 이러한 合議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国統一 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会를 構成 運営키로 合意하였다」는 合議事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分析 四半世紀만에 이루어진 公式的인 南北対話는 四半世紀의 悲劇的인 分断의 歷史를 한번더 생각해보지 않으라도 対話의 始作 그 自体가 国民與論(publio opinion)에 어떤 衝撃을 주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南北対話가 進行되어감에 따라 進行過程에서 発生하는 event가 国民與論에 크게 影響을 주었으며 六차례의 南北赤

十字会談과 三차례의 南北調節委員会 会談이 있을 현재 国民與論은 対話가 始作된 당시와는 어떤 差異가 있을 것이라고 直感的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밝혀두어야할 問題는 大韓赤十字社에서 南北韓의 離散家族찾기 運動을 提議했을때 그리고 七.四南北共同声明이 発表되었을때 거의 大部分의 国民은 이를 積極歓迎 했으며 어느누구도 公公然하게 反対意見을 提示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與論이 아니라 合意(Consensus)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與論이란 提唱되어진 어떤 問題에 대한 結論이며 어떤 行動에 必要한 意見의 一致를 求하는 手段이기 때문에 William albig가 主張한것 처럼 이미 論争의 餘地가 없는 도픽

例를 들어 一夫一妻制가 좋으냐 나쁘냐는 등의 問題는 與論의 対象이 될수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南北対話의 問題도 與論의 範疇를 벗어선 다시 말해 與論의 形成過程을 거치지 않는 合意라는 것이다. 與論은 대체로 ① 問題의 提起(disturbance) → ② 提起된 問題에 대한 支持 反対派의 分離(partizanization) → ③ 나누어진 派가 다른 派를 자기쪽으로 同調시키는 過程(propagandization) → ④ 討論(disoussion) → ⑤ 決定(decision) → ⑥ 意味의 再確認을 거쳐 認定(redifinition)의 六개 過程을 밟아 形成되는데 南北対話라는 問題의 提起는 問題의 提起 → 意味의 再確認을 거치 認定해 버릴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南北対話는 国民의 合意이고 国民의 意志이기 때문에

南北対話를 통해 窮極的인 目標(目的)를 達成해야 한다는 問題로 帰着되므로 이는 이미 政治의 領域에 属하는 것이며 南北対話의 進行過程에서 発生한 여러 event는 넓은 意味에서 政治技術의 問題이고 「国民의 輿論」의 限界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南北対話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平和的인 方法으로 祖国을 統一하는 첫걸음으로 民族의 念願이기 때문에 南北対話의 始作이나 過程에서 発生하는 event에 따라 国民의 反応(response)이 달라지는 것은 이는 어디까지나 南北対話가 中断되어져서는 않된다는 信念, 念願에서 反応되어지는 것이지 南北対話 그 自体를 反対하는 態度変容(attitude change)의 要因이 되는 意見(opinion)의 変化이거나 더욱이 現在的 意見(overt opinion)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点을 지적하고 싶다.

例를 들어 작년 九月 十二日 分断 二七年만에 처음으로 北韓의 공식 便節団(赤十字会談代表 一行)의 一員인 尹基福이가 바로 会談 첫날인 十三日 会談 벽두부터 「영광스러운 민족의 수도 평양」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등 공산주의의 역사와 그들이 主張하는 優位性을 力説하는가 하면 金日成의 「위대한 영도력」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일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온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순수한 동포애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국민들에게 싸늘한 찬밀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록 그들의 行動이 그런것이였나 하드라도 南北対話는 계속해야 한다는 念願에는 変함이 없었고 오히려 千里길도 한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会談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였으며 会談을 成功시키기 위해 会談方式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등 会談 계속을 위한 効果的인 方法論의 문제를 提起시켰으나 会談自体를 否定하거나 中断하도록 要求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같은 분노와 실망이 南北会談이 아니었고 다른 会談서 일어난 것이었더라면 그 会談을 中断하라고 輿論이 비등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事実을 밝히는 作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作業의 結果가 좀더 科学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南北対話가 시작된후 지금까지의 event들을 계기로 실시된 輿論調査結果를 土台로 했거나 매스 컴뮤니케이션의 内容分析의 結果를 土台로 해야하나 輿論調査의 資料도 제대로 얻지 못했고 時間의 制約으로 内容分析을 못해 便宜上 新聞을 통한 主張分析의 方法을 採했는데 主張分析의 方法도 主観的인 範囲는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 方法을 그대로 採하기로 했다.

2. 新聞에 報導된 国民의 反応(概要)

南北対話에 대한 国民들의 反応은 크게 나누어 南北対話의 시작으로서 大韓赤十字社의 家族찾기 運動의 提議 七.四共同声明의 発表 제一차 会談을 위해 大韓赤十字社의 평양 방문까지의 時期까지와 北赤代表団이 서울에서 政治発言을 한 제二차 赤十字会談 그리고 会談은 進行시키기로 하면서도 뚜렷해진 南北価値観의 差異를 발견하게된 第三次 南北調節委員会 会議까지로 나누어 説明할 수 있다.

먼저 結論을 말하면 제二차 赤十字会談에서 政治的 発言이 있기 直前까지 国民들은 南北対話의 시작을 크게 환영하면서 北韓이 이번에는 誠実한 態度로 임해줄것을 기대하는 反応을 보였으며 政治発言으로 北韓의 態度에 분노하고 크게 실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会談자체를 拒否하는 態度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南北対話를 하는 北韓의 価値観을 분명히 파악하게 되어 対話의 結実을 위해 서로는 方法의 모색이 必要하다는 反応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主張分析을 하기 위해 新聞으로 東亞日報 一個紙만을 任意抽出 使用했으며 時期는 制限된 紙面때문에 大韓赤十字社가 南北家族찾기 運動을 提議한 (1) 一九七一年 八月 十二日부터 一週日間, (2) 南北共同声明이 発表된 一九七二年 七月 四日부터 一週日間, (3)北赤代表団이 政治的 発言을한 제二차 赤十字会談이 개최되는 一九七二年 九月 十一日부터 一週日間의 新聞이다。

이상 三개 期間의 event만으로도 南北会談에 대한 우리 国民의 態度를 分明히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国民의 反応은 新聞의 편집方向대로 따랐다。

△ 一九七一年 八月 十二日(大韓赤十字에서 離散家族찾기 運動提議)

政黨 社会団体의 反応

△ 共和黨=大韓赤十字社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六。二五때의 失郷離民을 포함 南北間의 분산된 가족을 만나도록 하자는 제의는 人道的으로나 民族的 견지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北韓

은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또다른 제의를 한다면 이를 마땅히 경계해야 할것이다.

△ 新民黨=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하며 가족찾기운동을 이데오로기 이전의 인도적인 次元의 문제로서 북괴가 반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제의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反共정책을 지양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기 바란다.

△ 한국노총=三百萬 노동자는 윤리와 인도적인 면에서 너무나 타당할뿐 아니라 남북한의 민주적인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이라고 믿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북괴는 이제 안으로 선으로 받아들여 모든 분단국가 중에서 민주통일의 본보기가 되는데 앞장섰것을 촉구한다.

△대한체육회=인도적 견지에서 적십자사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 한국 宗教協議会=가족찾기 운동의 제안은 바로 五千万의 호소이며 절규다.

△ 全国경제인 연합회=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에기되는 적극적인 자세를 높아 평가한다. 남북간의 대화의 길을 찾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처럼 빨리 이루어진 것이 효뭇하며 전국민적인 지지를 보나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 한국 반공 연맹=제의를 쌍수를 들어 찬성하며 이제의가 성공되기를 기원한다. 북한 적십자측에서 萬에 1이라도 이제의를 거부한다면 다른 어떤 평화적 의도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한국부인회=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 白樂濬박사(연세대 명예총장)=인도적 의미에서 적극 찬성한다. 북괴를 상대하는데 여러가지 고려할 점도 많겠으나 특히 인도적인 이해의 길을 트기 위하여 북괴가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 姜元龍씨(목사)=진작 있었어야 할일이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안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란다.

△ 金光鎬씨(소설가)=이 제안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 밖에 九명의 말을 더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 모두가 제의를 환영하고 있다.

△「南北対話의 試圖」라는 社說을 통해 「이 提議를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안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독자두고난인 潮流에 「한결같이 기쁨의 환호를 드리는 바이다」라는 金河鎔씨의 글을 실었으며 社会面에 「分断家族」이란 네리다지 특집을 실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신민당 權仲敦 공화당의 [illegible]위원등은 가족찾기 운동을 지지하면서 북한이 제의를 지지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단계적인 협조를 할것이냐를 질문 횡설수설에서도 제의에 대한 찬의표명

△ 八月 十四日

「南北家族찾기 열매맺기」를 題下의 좌담회 보도 「二六돌맞는 光復節의 感懷」에서 八.一二제안은 全国民이 쌍수로 환영했다고 지적 「統一의 실마리가 되었으면」의 제하로 十一명의 八.一二제안에 대한 찬성 反響을 실음.

△ 八月 十六日

북한에서 가족찾기 운동에 호응하자 가족찾기운동을 進行시키는 前

提조건 方向에 관한 글을 싣기 시작함。 사설 「家族찾기 운동의 前提条件 게재 특집으로 許政씨의 寄稿 「南北対話에 붙인다」를 게재

△ 一九七二年 七月 四日 (南北共同声明 発表」

△ 대한상공회의소=예상외로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사태 진전이며 엄숙한 자세로 이를 환영한다。 이 합의가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되기를 온국민과 더불어 기원한다。

△ 전국경제인 연합회=이번공동성명은 국제적인 긴장완화 조국을 주체적으로 실현코자 하는 획기적인 노력으로 보아 그동안의 교섭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 한국노총=이번 발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개선에 희망을 준다。

△ 金一炔 재향군인회 회장=전쟁도발의 위험과 긴장 상태를 대화를 통해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족의 염원인 南北統一을 外勢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南北対話를 통해 이루어 보자는 공동성명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 韓景職씨 (목사) =놀라운 소식에 얼떨떨하다。 대전보다는 대화가 좋은 것이므로 이를 환영한다。

이밖에 社会面에서는 서울 釜山을 비롯한 大都市 市民들의 反応을 보도 「충격적인 뉴스에 탄성터져」제하에 七。四共同声明을 환영하는 市民들의 反応을 보도하고 있다。

△ 七月 五日

一面에 許政씨의 「우리의 나아갈길 — 南北共同声明을 보고」를 게재 社説「韓半島의 平和를 위하여」에서 「南北共同声明이 당연한

現実的인 問題로서는 韓半島의 緊張状態 완화를 約定하고 다음 計劃으로서는 交流와 対話와 協議에 의한 南北韓의 再接近을 圖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歷史的 転回이고 歷史的 決意라고 평가하여 民族의 입장에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와야할일 오고야 말았다」는 題下의 南北共同声明에 분석하는 라디오 논평 특집

△ 七月 六日

南北共同声明을 지지하는 韓国新聞協会 声明書 発表

△ 一九七二年 九月 十二日(北赤代表団 一行 二次会談次 入京)

一面에 徐銀午씨의 「赤十字会談은 人道的 会談이다」라는 칼럼으로 실음。 徐씨는 政治介入되면 서로 冷冷해질뿐 흥모말고 思慮깊게 対話進行시켜보자」고 主張 三面에 金信씨의 「南北赤十字 서울 会談에 즈음하여라는 칼럼을 실음。 金씨는 民族의 理性 회복 아쉽다」고, 主張。 「赤十字 서울 会談」 題下의 社説에서 赤十字会談은 아무리 그 歷程이 길고 아무리 그길이 험난하고 오솔길과 같다 할지라도 五千万 民族의 自律的인 力量을 対内外的으로 과시하기 위해 이 会談만은 꼭 성취시켜야 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所願이다」라고 主張。

社会面에 「女高生 꽃다발에 선물答礼, 北의 行列에 손흔들며 박수」라는 타이틀로 北赤 一行 入京을 톱으로 보도。

△ 九月 十三日

一面＝「人道에 忠実하면 政治도 열린다는 裵元龍씨의 글을 실음。裵씨는 우선 赤十字정신에만 專心，性急한 비약은 비극만 가져올뿐」이라고

三面＝北赤 尹基福의 친구 李恒振씨의 「北에서 온 친구」라는 글을 실음。 李씨는 이 글에서 「紅顔의 우리가 어느새 四〇代가 됐구려 나는 小医로 肉身의 病苦를 救하지만 中医의 重任을 진 자네는 離散家族의 깊고 깊은 상흔을 말끔히 씻어주게나」라고 부탁。

특집으로 「南北 서울 会談에 부친다」에서 「入京 환영은 会談成功을 비는 自由市民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十一名의 市民들의 발언을 실음。

△九月 十四日（北赤 政治 発言）

一面＝머리 기사로 「断層은 깊었다」의 해설기사를 싣고」 北赤이 이번 会談場에서 거의 意識的으로 政治宣伝을 늘어 놓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서울 会談을 계기로 南赤측의 会談戦略에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主張。

△ 共和黨 玄梧風 원내 총무＝北赤측이 보여준 정치적 선동을 회담의 장래를 위해 매우 유감된 일이며 앞으로 회담의 진행방식을 재검토할 必要가 있다。

△ 新民黨＝赤十字会談이 또하나의 板門店会談場이 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고 南北 이산가족찾기라는 人道的 과업 성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歷史에 不可能은 없다」라는 安秉煜씨의 칼럼을 실음。 安씨는

千里길도 한걸음부터 시작 정치적 선전은 말고 동포애로 돌아오라고 主張.

三面=社說 「赤十字 精神의 反省」에서 「五千万民族의 한결같은 悲願인 이산가족찾기운동에 앞서서 北赤代表들은 人類愛와 소박한 愛国愛族이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識別하도록 부탁하고 싶다」면서 赤十字 정신으로 돌아와 会談을 성공시키도록 촉구.

특집 「北의 政治연설로 험난한 앞날」을 싣고 金在淳씨 金點坤씨의 대담을 보도. 두 金씨는 순수한 적십자정신이 아쉽고 인내로 시간을 벌어 열매를 맺어야하며 적십자회담은 五千萬의 열망이라고 주장.

사회면=머리기사로 「人道的 会談을 선전무대로 悪用하다니」「北赤 政治色에 회의와 분노가…」 「라디오 내동댕이 치기도」 「환영하던 시민들 저마다 흥분, 분통, 냉소로 돌변」 「회담지켜보던 시민들 신문사,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라는 시민들의 태도를 보도.

△ 九月 十五日

三面=「南北赤会談 좌초위기에서 回生」이란 해설기사에서 서울会談 合議文書 교환의 意義를 강조하고 심각한 異見은 調節委員会에서 調停가능 하다고 보도.

李浩哲씨의 「民族앞에 겸허합시다」라는 칼럼을 실음. 李씨는 어둠속 한줄기 빛아끼고 지난날 쓰라린 責任 나누어 갖자」고 主張.

3. 結　論

이상 新聞의 報道를 通해 南北会談에 대한 国民의 反応을 보아온 것처럼 南北会談은 国民與論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南北会談은 「하느냐」 「拒否하느냐」가 아니고 어떤안이 있드라도 北韓을 説得시켜 進行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南北会談을 進行시키 나가기 위해 제三자 조결위 会談에서 드러난 北韓의 가치관등은 오히려 우리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反応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서도 지적했지만 南北会談은 国民與論의 次元을 넘어선 것이며 南北会談ー南北問題는 政治의 次元에 属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南北対談을 계속시키고 分明한 우리의 目的을 追求하기 위한 政策만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특히 南北対話는 다른 政治的 問題와는 달리 国民의 合議를 얻고 있으므로 政策을 追求해 나가는데 対内的인 不一致는 発見할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다만 問題는 目的을 追求하는 가까운 方法이 国民들이 생각하고 있는 方法과 政策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過程에 乖離現象을 빌어서는 안될 것이다。

南北対話의 成功이 온 国民의 念願이기 때문이다。

統一問題學術會議

南北對話가 大學生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影響

閔 丙 天

東國大學校 敎授

1973年 6月 28日～30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一. 序　　言

많은 사람들은 大学生을 思想的 脆弱勢力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것은 두가지 先入観이 作用하기 때문인듯 하다. 하나는 그들이 6. 25戰爭을 観念의 世界에서만 経験했을 뿐이라는 理由이고 또 하나는 青年에게는 拒否 心理가 있다는 점일듯 하다.

그러나 大学生에 대한 이러한 思考는 그들의 意識을 科学的으로 調査한 結果에 의해서 形成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果然 大学生들이 어떤 政治的 意識을 하고 있는가? 특히 南北対話와 관련하여 思想的 危険地帶 인가의 與否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意見調査가 先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調査結果에 따라 그들에 대한 評価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며 政治的 教育의 方向도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南北対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統一観, 情勢観 会談観을 조사하고 그것이 71年 12月과 72年 9月의 全国調査時의 大学在学生, 및 大学出身者의 反応과 比較하므로서 意識変動을 살피기로 하였다. 물론 71年 調査対象数는 215名이고 72年度는 654名이고 今番에는 100名이라는 数的 差가 있고 71年과 72年에는 大学生의 人口対比率에 따르는 割当方式으로 調査했고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았으며 71年과 72年에는 大学出身者도 포함시켰으나 이번에는 在学生만이 対象으로 되었다는 점등에서 比較価値가 감소될지 모른다.

그렇다고는 하나 時間的 差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比較를 통해서 意識変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大学生의 南北対話와 관련된 意見을 分析하고 거기서 導出된 問題点에 대한 解消方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調査結果의 数値的 表現은 諸與件으로 하지 않기로 하겠고 調査項目中 一部에 대한 結果만 제시하기로 한다.

二. 南北対話에 대한 大學生 意見

1. 統 一 観

가. 統一時期予測

大学生을 포함한 全国民이 統一을 強力히 希求하고 있음에 비추어 「現情勢로 보아 언제쯤 統一이 될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을 하여 보았다. 이것은 希求水準과 現実水準間의 合致度를 알기 위해서 設定된 물음이었는데 그 特徴的 反応은 다음과 같다.

(1) 統一이 永遠히 不可能하다고 보는 大学生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그 数가 71年의 4倍 및 72年의 7倍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結果는 그동안 진행된 南北対話가 大学生의 意識을 크게 変化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原因이 어디에 있든 大学生中에서 統一諦念論者가 急増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事実이

아닐 수 없다.

(2) 数年内에 統一이 可能하다고 보는 大学生이 激減하고 있다는 점이다. 10年内에 統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大学生은 71年의 調査에 比해서 16分의 1로 줄었고 72年의 그것에 비해서 8分의 1로 줄었다. 즉 数年内 統一이 될 것으로 보는 知識人이 激減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国際情勢, 南北対話의 進行過程등이 影響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操急한 統一観을 갖지 않도록 촉구한 政府의 弘報가 奏効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나. 統一実現 段階観

対話가 진행되는 동안에 南北間에는 統一을 実現하는 段階方法에서 뚜렷한 差異를 보였는바 非政治優先主義에 기초를 두는 南의 段階解決論과 政治優先主義와 관련된 北의 一時解決論이 그것이다. 兩側이 対立된 方法論을 내세우고 있는 統一段階観을 알기 위해 「統一을 어떤 順序로 실현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물음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특징적 反応을 보였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은 非政治的인 交流를 先行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政治優先 또는 一括処理案에 비해서 約 7倍의 支持反応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対話過程에서 나타난 北側의 政治的 態度와 社会教育의 影響때문이라고 하겠다.

(2) 어느 特定方案에 支持의 集中化가 없다. 이를테면 人道交流→文化, 経済交流→政治統合이라는 方式과 文化, 経済交流→人道交流→政治統合이라는 方式에 分散的인 支持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

은 최근 政府의 政策指導上에 不明確性이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로 보인다。 72年의 調査때에는 人道交流→経済，文化交流→政治統合이라는 図式이 一般性을 가졌으나 이번에는 経済，文化交流를 人道交流에 先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前者와 대비하여 4：3의 比率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다。平和達成 方案

「戦争을 예방하고 韓半島의 平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치중해야할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反応을 보이고 있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은 自体的인 総力安保態勢의 強化를 平和条件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러 反応은 72年과 거의 같다。

(2) 그러나 南北平和協定締結을 내세우는 사람도 72年에서 줄지 않았으며 四大国保障論者는 72年보다 約 倍数에나 이르고 있다는 점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2。情 勢 観

가。美軍撤収에 대한 意見

「駐韓 国聯(美)軍이 撤収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反応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過半数가 当分間 撤収해서는 안된다는 意見이고 統一時까지 駐軍을 바라는 意見도 상당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反応이 나타나게 된것은 北韓으로부터의 侵略危険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国民意識의 反映이라고 하겠다。

(2) 当分間 駐留해야 한다는 意見은 72年보다 적지 않은 増大를 하고 있지만 또한 統一時까지 駐留하기를 願하는 사람은 72年에 비하여 적지 않은 減少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反対은 韓半島에서의 平和가 確保될때 까지만 美軍駐留를 바란다는 것을 뜻하는바 自主国防 또는 主体意識을 강조한 政府의 努力과 南北対話가 影響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北韓社会에 대한 印象

赤十字会談이 있은 후에는 많은 国民이 画面으로 또는 紙上으로 北韓社会를 表面的이기는 하나 볼 수 있었다。 이 보고 들은 후의 北韓社会에 대한 評価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北韓의 風景을 보고 들은 느낌」을 물어 본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이 北韓社会을 판에 박은 듯한 社会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社会에 대한 肯定도 否定도 아닌 中立 反応인 것이다。

(2) 北韓社会에 대하여 否定的인 反応을 보이고 있는 「北韓住民의 모습에 생기가 없다」는 反応을 72年에 비하여 4分의 1로 減少되고 「짜임새 있는 모습」이라는 好意的 反応은 0.5倍가 늘어나고 있다。 72年에는 北韓社会를 予想과 相反되게 본 知識人이 하나의 条件 反射的인 反応을 보였기 때문인듯 하다。

다。南北韓 住民 生活観

1968年 以後에 北韓에 대한 지식이 점차로 늘어 났고 특히 南北対話를 계기로 하여 北韓의 風物을 보았던 大学生이 北韓住民의 生活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알아 보는 것은 중요한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런 뜻에서 「住民의 日常生活面에서 南北韓 어디가 더 잘산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反応이 나타났다。

(1) 우리 住民의 日常生活이 더 낫다는 意見이 지배적이지만 이런 反応은 南北対話가 있기 前인 69年에서 予備会談만이 始作됐던 71年을 거쳐 北韓의 風物을 画面으로 볼수 있었던 72年에 이르는 동안 점차로 감소되고 있다。 이같은 減少는 北韓에 대한 知識의 増大와 反比例한 것이었다。

(2) 우리 住民의 生活이 낫다는 意見이 減少되어 가는 대신 「서로 비슷하다」는 意見이 조금씩 늘어갔다。 물론 全体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큰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같은 大学生의 北韓에 대한 評価의 変化는 어느 뜻에서는 現実化라고 할수도 있겠으며 그에 따라 免疫性의 賦与라는 結果를 가져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다。 北韓의 南侵可能性

大学生들의 対北 警戒心을 측정하기 위해서 「現情勢로 보아 北韓의 武力南侵이 없겠느냐」는 물음을 하여 보았는데 「南北対話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北韓의 挑発이 거의 완전히 中止되고 있던 72年 9月의 調査에 나타난 大学生 및 大学出身者의 反応과 73年 6月의 그것과에는 뚜렷한 차가 나타났다。

(1) 72年의 경우 大部分이 「당분간은 무장공비 및 전면남침이 없을 것」이라는 反応을 보였는데 73年에는 이에 대한 反応과 「武装共匪浸透만은 있을 것」이라는 反応이 비슷한 比率로 나타났다。

(2) 「武装共匪浸透가 있을 것」으로 보는 数가 72年에 비하여 2倍에 이르고 있는바 이것은 73年에 잇단 間諜南派와 休戦線上에서의 事故에 影響된 結果로 보인다。

(3) 「当分間 共匪浸透도, 全面南侵도 없을 것」으로 보는 数가 72年에 비해 크게 줄고 대신에 「全面南侵危険이 있다」는 意見이 72年에 비해서 크게 늘어 났다。 이것도 역시 昨年 9月以後의 状況展開에서 영향된 結果라고 하겠다。

3. 赤十字会談에 대한 意見

가. 赤十字会談의 展望

赤十字会談의 5個議題中에서 기타사항을 제외한 4個議題의 実現可能性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反応은 다음과 같다. 時期的으로 보아 生死確認을 第1段階로; 面会 및 書信往来를 第2段階로, 訪問을 第3段階로 再結合을 第4段階로 仮想하고 어느 段階까지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본 것이다.

(1) 生死確認과 書信交流 段階까지 진전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会談에 대해서 失敗할 것으로 보는 사람을 제외하면 第1段階와 第2段階까지에 集中的인 反応을 보이고 第3段階와 第4段階에는 거의 反応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第1段階와 第2段階間의 差는 거의 없으나 第2段階와 第3段階間에는 큰 差가 있다.

(2) 会談 自体가 失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大学生이 72年에 비하여 3.5倍에 이르고 있고 失敗할 것으로 보는 것이 다른 어떤 項目에 대한 反応보다도 많다는데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런 結果는 会談進行 過程에서의 北韓의 態度에서 나온 反応이라고 하겠다.

나. 北韓赤十字代表의 主張에 대한 意見

「南北赤十字会談에서 北韓이 反共法과 国家保安法의 廃止를 제기한 理由」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反応은 다음과 같다.

即 北韓의 提議를 「赤十字事業을 위해 필요」하다고 肯定的으로

받아들인 大学生은 거의 없고 大部分이 「会談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또는 「赤化統一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提議를 한것이라고 否定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앞의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南北対話에서 어느 쪽이 더 誠意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대 대해서 北側이 더 誠意있다고 보는 学生은 전혀 없으며 「우리측이 더 있다」는 反応에서 「쌍방이 모두 성의있다」는 것과 「쌍방 모두 무성의 하다」는 順의 反応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南北対話의 進度評価

南北対話에 대해서 너무 빨리 진행된다고 보는 여론과 너무 부진하다는 意見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大学生들에게 「南北対話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대 대해서 다음과 같은 反応을 보이고 있다.

(1) 大部分의 学生이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南北関係의 새로운 展開에 대해서 무急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2年 11月까지의 対話가 어느 쪽에서는 너무 빨리 진전되어 갔던 것인데 그러한 「速度를 大学生들이 想定」하고 있는 때문인듯 하다.

(2) 너무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学生은 極少数이고 適切하다는 反応을 보인 学生도 相当数가 있다.

라. 調節委会談의 先決事項

南北調節委員会의 会談이 方法論上의 意見対立을 보여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南北調節委 会談의 진전을 위해서 먼저 해결할 問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反応은 다음과 같다.

(1) 段階的 接近方法을 내세운 우리측의 주장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学生이 絶対多数이었다. 즉 解決하기 쉬운 問題 또는 経済, 文化등의 問題를 先決하고 段階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一般化되고 있다.

(2) 北韓側이 내세우는 平和協定締結이나 全分野의 同時解決論은 大学生들에게는 不合理한 것으로 排斥되고 있다.

三. 問題点 및 対策

1. 問題点

앞의 調査結果를 보는 가운데 問題点이 示唆되었거니와 이를 다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첫째로 対話過程에서 北韓側이 주장한 事項에 同調的이거나 北韓社会에 好意的 反応을 보이는 大学生이 무시할 수 없이 全事項에서 비슷한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는 点이다.

이것은 社会 및 学校教育을 통한 政治教育에 盲点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南北対話에 대한 期待水準이 現実水準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

다는 점이다. 「対話가 너무 不振하다」는 意見을 제시한 学生이 大部分인바 이것은 期待가 컸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現実水準이 期待水準에 맞지 않을 때는 그로 因하여 諦念論 또는 対政府攻撃性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問題는 더욱 複雑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앞의 것과도 관련되지만 統一諦念論者가 72年에 비해 7倍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統一이 곧 実現될지도 모른다는 感傷的 民族主義와 早急 統一論이 後退한 점에서는 幻想이 現実로 회복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나 統一 諦念論者가 大学生間에 급증한다는 事実도 注視할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넷째 南北関係에 대한 悲観論은 統一問題에서 뿐만 아니라 赤十字会談 問題에서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赤十字会談이 失敗할 것으로 보는 意見이 72年에 비해서 3.5倍가 증가했는데 統一問題와 赤十字会談에 대한 이러한 悲観論 또는 諦念論의 増大는 感受性이 많은이들에게 心理的 挫折感(frustration)마저 갖게하여 다른 중대한 問題를 潜在시킬지도 모른다는데 問題性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統一実現段階論에 대한 意見의 統一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政府가 従来에 主張한 三段階 統一論(人道 → 経済, 文化 → 政治)이 対話가 二元的으로 진행되면서 또 対話過程에서 생긴 問題性에 영향되어 国民意思를 集中的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즉 三段階統一論에 있어 経済, 文化가 先行될 수도 있음이 비쳐졌고 또 人道問題와 経済, 文化 問題가 同時的으로 別個的으로 진행 해결될 수 있다는 主張도 있기 때문에 大学生에게서도 意見의 統一化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 問題点은 政府의 政策指導가 統合性, 単一性을 지니지 못하므로서 생긴 間接結果이기도 하다는 뜻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北韓社会에 대한 批判的 故意的인 反応이 72年에 비해 4分之1로 減少하고 好意的 反応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現象은 어느 面에서는 幻影이나 虚像만의 北韓 image가 現実世界에서 実像化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問題点이 될 수 없다고도 하겠으나 現実批判性, 感受性 強한 革新指向性등을 가지는 大学生에게서 그러한 反応이 나왔다는 점은 体制的 側面에서 가볍게 생각할 問題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対 策

対策은 問題点을 해결하기 위한 具体的 方案으로 제시되는 것이 通例일지 모르나 여기서는 몇가지 基本的인 課題를 例示的으로 提示하는데 그치기로 하겠다.

첫째로 大学生에 대한 政治(思想) 教育이 現実的 基盤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1) 北韓에 대한 教育을 観念的 方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実相(実態)의 正直한 解説과 評価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2) 大学生의 참된 意見을 파악하고 또 그들의 政治知識을 파악하기 위한 調査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3) 現実教育의 効果的 遂行이 可能할 수 있는 資料(情報)가 획득되어야 할 것이다.

물제로 統一問題, 安保問題, 北韓에 대한 研究에 学生이 参与할 기회를 마련하여 批判能力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이들 問題는 特殊事項이므로 다음과 같은 措置가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1) 各 大学에 設置된 해당분야 研究所 또는 그와 類似한 学科나 研究所의 教授指導下에 研究를 하게 하고

(2) 그러한 機関 또는 教授指導下에 한정된 部分에 대한 資料를 大学生에게 제공하고 그 幅을 점진적으로 늘이도록 할 것이며

(3) 運営의 主眼은 上記機関 또는 教授가 大学生을 指導 啓蒙하는 方式으로 부터 出発하도록 하므로서 各 研究所를 통한 国民啓導的 効果도 얻도록 할 것이다.

셋째 大学講義題目 또는 国民倫理 課目内容에 北韓実態, 共産国政治論, 安全保障論, 統一問題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結　　言

以上에서 南北対話와 관련된 大学生의 意見을 調査結果에 따라 分析하고 問題点을 導出하여 그에 대한 対策方案을 제시하여 보았거니와 그 가운데서도 注目할 것은 先入観的으로 大学生의 意識에 疑懼心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몇가지 점에서 注視해야할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対応措置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感受性이 강한 이들에 대한 善導策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하여 健全한 思想風土가 大学社会에서 확립되게 하므로서 交流와 統一에 대비하는 態勢가 部分的으로나마 整備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問題學術會議

北韓對南心理戰 現況 評價와 그 對策

金　南　植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 研究所 研究員

1973年 6月 28日～30日

全 南 大 學 校

統一問題研究所

心理戰이란 冷戰下에서나 準戰時下에서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相対方을 굴복시킬 수 있고, 또한 相対方의 間接侵略을 防衛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対外的으로는 相対方 住民들에게 不安感·초조감·恐怖心·自己否定등의 心理的 자극을 주어 相互不信·分裂·사기저하·가치관의 혼란 思想전환을 가져오게 하여 反政府 自體전복등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멸 붕괴케하는 것이며 対内的으로는 官民의 団結을 強化하고 生産意慾증진·사기앙양, 협조심, 愛国心고취등에 큰 영향을 주고 일정한 目的으로 住民들을 단합된 意志와 行動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心理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共産主義者들은 무엇보다도 心理戰活動에 力点을 두고 있다.

北韓에서는 1956年 3次 党大会를 계기로 心理戰 特히 対南心理戰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갔다. 3次 党大会에서의 金日成 報告에서 心理戰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強調했다.

「現段階에 있어서 우리 革命의 最大課業은 南朝鮮人民들을 帝国主義와 封建主義의 압박으로 부터 解放하고 祖国의 民主主義的 統一을 達成하는데 있으니만큼 南朝鮮에 対한 研究와 宣伝事業이 우리 党 思想事業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実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対南宣伝事業을 위한 対策을 강구하지 않고 있읍니다. ……南朝鮮 政勢를 研究하며 그를 宣伝하는 것은 南朝鮮 勤労大衆을 政治的으로 教養 계몽하는데 目的이 있으며……우리는 모든 手段과 方法을 다 이용하여 対南政治事業을

改善할 根本的 対策을 強求해야 한 것입니다. 」

이와같은 対南心理戰 強化策에 根拠하여 対南心理戰 活動이 本格化 되었는데 4 . 19 革命을 계기로 보다 強化되었고, 그후 계속하여 強化 시켜왔다.

対南心理戰의 基本方向과 目標는 南朝鮮革命 (暴力革命) 을 成就시키기 위한 基本的인 戰略目標를 達成하자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南朝鮮革命의 与件과 環境조성을 하기 위한 美軍撤収 平和統一 분위기 조성 反美 反政府선동 韓国政府의 弱體化, 共産主義思想 고취, 金日成 「 偉大性 」부각, 南韓體制의 취약점 宣伝, 反共法 国家保安法撤廢, 左翼政党活動의 合法化등을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与件의 조성을 위하여 每時期마다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心理戰 内容 및 方法은 달라지고 있으나, 그 基本目標와 方向은 어떠한 状況下에서도 변함이 없다.

心理戰의 手段과 方法으로서는 다음의 몇가지 例를 들 수 있다.

① 戰略戰術放送 — 放送手段을 통한 心理戰은 北韓의 対南心理戰의 중추를 이루다 싶이 하고 있다. 現在 放送은 中央放送, 平壤放送,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등이 있다. 中央放送은 主로 北韓의 対内放送을 担当하고 있으며, 平壤放送과 統革党목소리放送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対南放送을 맡고 있다. 平壤放送은 戰略放送이라고 본다면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은 戰術放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休戰線 155mile全域에 걸쳐 戰術用 확성기放送이 있는데 이것은 그 확인된 数字가 作戰用 96基, 방해용 102基 도합 198

臺가 設置되어 있다.

⑵ 전단 및 불온문서 — 계절등을 이용하여 불온 전단 살포 및 第3国을 통한 편지, 팜푸렛, 삼지등의 투입등을 들 수 있다.

⑶ 관문점 이용 — 판문점 회담장소를 그들의 선전장 모략장으로 이용한다.

⑷ 南北会談을 通한 心理戰 — 이는 代表 및 수행원들에 대한 心理戰工作과, 会談場所에서의 発言등을 이용한 각종 宣伝活動의 展開등이다.

⑸ 납북자 및 間諜을 通한 심리전 — 납북어부들에게 共産主義思想을 주입시켜 다시 송환시켜서 그들로 하여 活動하게끔하며, 간첩망을 通한 제반의 活動등을 들 수 있다.

⑹ 우회적 心理戰을 쓰는 경우 — 이 경우는 주로 日本 朝総聯을 通해 南韓에 있는 家族 親知들을 사주하는 心理戰의 형태이다.

이상과 같은 手段과 方法으로서 対南心理戰이 展開되어 왔었는데 1971年 南北赤十字会談이 始作됨과 함께 対南心理戰 역시 새로운 様相으로 바뀌어 보다 積極的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最近 対南心理戰의 動向은 7.4南北共同声明書 発表를 前後하여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7.4共同声明前에는 心理戰 内容이 판에 박힌 듯한 内容에다 그 어투 또한 변함이 없었다. 이에 反해 共同声明前後에 와서는 보다 多様性을 띠게 되고 또 그때 그때의 時期性과 구체성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는 것같다.

7．4共同声明後에 있어서도 南韓에 対한 各種비방을 위한 放送이 끝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심도가 더해감에 1972年 11月 10日 南北調節委員会에서 비방 放送을 중지할 것을 合議보았다. 合議後 우더側에서는 対北放送을 事実上 中断했으나 北韓側에서는 종전에 그들이 사용해 오던 비방어조가 조금 달라졌다뿐 그 内容에 있어서는 하등의 개선도 보이지 않는 보다 교묘한 心理戦放送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1973年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会議以前의 비방선전보다 더 격화된 放送을 하고 있다.

<< 비 방 내 용 (1972. 7.4 ~ 11.10 / 11.11 ~ 73. 5.31) >>

要綱別 / 期間	特定人	政府및政策	社会観	軍 部	維新事業	南北会談	韓美日	計
1972. 7.4~ 11.10 (4個月間)	35	171	808	0	0	65	0	1,079
1972. 11.11 ~ 5.31 (6個月間)	178	564	527	168	86	201	241	1,965
計	213	735	1,335	168	86	266	241	3,044

<< 비 방 추 세 >>

內容 \ 시기	72. 12	73. 1	73. 2	73. 3	12 : 比
유신비난	75	152	166	115	1.5배
韓美日이간	88	135	67	116	6.3배
주민투쟁선동	60	132	164	214	3.6배
특정인 및 정·부비난	635	959	1,034	1,175	1.9배
計	858	1,379	1,431	1,622	1.9배

비 방 통 계 73. 4.11 ~ 5.31

手段 \ 要素別	特定人	政府및政策	社会相	南北会談	韓美日関係	計
平壤放送	43	71	23	75	35	344
中央放送	17	33	16	23	25	142
計	60	104	39	98	60	486

이와 같은 비방을 目的한 心理戰放送은 소위 신빙성을 가한다는 것으로 부터 南韓에서 発刊되는 新聞·通信·放送등을 逆利用하는 경우가 許多하다 1973年 3月 1個月間 北韓 中央放送·平壤放送 中

央通信이 보도한 対南宣伝内容中 新聞·放送 및 通信을 逆利用한 통계는 다음 表와 같다.

<< 73 . 3月中 新聞·放送 및 通信 逆用보도 통계 >>

구분 / 종별	중통	중방	평방	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신문		53	87	140	18	31	77	14
통신		1	5	6		3	2	1
방송		19	27	46	4	8	27	7
불명		13	13	26	5	3	12	6
計		80	131	218	27	45	118	28

위에서 본 통계상에 나타난 数字만 보더라도 北韓은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종전의 対南心理戦을 오히려 더 強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要素別 放送의 비방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特定人 및 政府 — 大統領에 対한 비방이 날로 악랄하고 노골화해가고 있다. 例를 들면 朴○○傀儡徒党·朴○○悪党·朴○○徒党·朴正熙등등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말을 쓰고 있다.

(2) 政府 및 政策비난 — 例를 들면 今年 5月 26日字 中央放送은 아래와 같이 放送했다. 「南朝鮮当局者들은 우리를 헐뜯기 위해서 어린것들까지 내모는가 하면 政治的 매춘부로 전락된 이용 신

전기구까지 동원해서 反共 쌍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

今年 5月 27日 平壤放送은 「南朝鮮 全體 総数의 91%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中小企業體들은 原料難, 資金難, 판로란등으로 해서 外国独占資本家들과의 競争에서 못견디고 무더기로 파산 또는 몰락되고 있다. 」

1973. 5. 7中央放送은 「새마을 運動이란 이른바 10月維新事業에 経済問題를 結合시킨 反動的 精神運動으로서 自己들의 政治的 기반을 누리고 反共精神을 고취하여 戰爭準備를 책동시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

③ 社会相 — 今年 5月 28日 中央放送은 「南朝鮮 労動者들은 착취와 약탈에만 눈이 뒤집힌 資本家놈들의 수탈밑에 초보적인 설비와 작업조건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오직 살기 위해 하루 平均 13 ~ 16時間, 심지어는 16時間~20時間까지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는 不幸한 処地에 있다 」

④ 住民선동 — 今年 4月 23日字 平壤放送은 「오늘 南朝鮮 人民들 속에서는 金日成을 民族의 太陽으로 흠모하고 있으며 一片丹心 그이게 忠誠을 다 하려는 熱情이 大河처럼 출렁이고 있다 」

⑤ 軍部. — 5月 15日 中央放送은 「南朝鮮에서는 귀청을 째는 듯한 어지러운 포성과 총성이 그칠날이 없으며 共和国 北半部를 反対하는 戰爭소동을 連日벌리고 있다 」

⑥ 反美. 反日 — 5月 15日 中央放送은 「日本帝国主義者들은 公公然히 우리 民族 内政에 干渉하면서 南朝鮮当局者들과 結託을 強

化하고 있으며 朝鮮에 対한 美帝의 侵略과 戰爭政策에 加担하여 우리나라를 反対하는 戰爭準備를 強化하고 있다 ㄱ

⑦ 南北対話 — 5月 10日 中央放送은 ㄴ거리마다 5 m~10 m의 간격을 두고 누런 잠바를 입은 사복경찰들이 늘어서서 우리들을 統一의 사절로 환영하고 있는 南朝鮮 人民들을 가로막고 있다 ㄱ

이 처럼 전혀 사실무근의 중상비방을 일삼고 있다.

戰略放送인 平壤放送에서는 午前5時부터 밤 12時까지 対南 心理戰放送을 展開하고 있는데, 주로 金日成에 対한 偉大性 부각과 共産主義理論解說 및 南朝鮮內部의 革命봉기에 대한 指導講座 北韓 社会主義制度에 対한 宣伝, 南韓社会가 지닌 취약점에 対한 理論的 解說 등을 하고 있는데 今年 4月 15日부터는 종전에 하던 맑스·레닌主義放送大学 대신 金日成放送大学이라는 것으로 그 名称을 바꾸어 金日成의 ㄴ革命歷史 ㄱ, ㄴ金日成 労作 ㄱ, ㄴ革命伝統講座 ㄱ, ㄴ政治経済学講座 ㄱ ㄴ朝鮮労動党 政策史講座 ㄱ등을 內容으로 当日 첫부로 放送하고 있다.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은 1970年 6月 1日부터 매일밤 9~11時까지 南韓內部에서 放送되는 것 처럼 위장한 黑色 放送을 해왔었는데 今年 3月 1日부터는 그 時間을 午前 6~8時까지 午後 7~11時 도합 6時間으로 그 時間이 3倍로 늘어났다. 그 放送內容은 주로 南韓內部에서 일어나고 있는 事件 또는 時事的인 問題들을 비방중상하는 것들이다.

統革党放送에서는 그 放送이 北韓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南韓內의 地下放送이라는 역지를 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즉 7月 14日 同放送에서 「우리 統一革命党 목소리放送은 벌써 3年前부터 朴正熙政権의 맛쇼한압에 의해 地下에서 正義의 목소리, 真理의 목소리, 民衆의 목소리, 民衆의 利益을 대변하는 各階各層의 목소리, 統一의 목소리, 革命의 목소리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 당국자들은 統一革命党 목소리가 마치 무슨 어떤 北半部를 대변하는 듯이 그러한 목소리 방송으로 비방중상하고 별별중상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밖에 心理戦 方法으로서의 불온문서 투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南北会談을 통한 宣伝的인 効果 그리고 우회적 方法에 의한 心理戦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休戦線에서의 확성기를 통한 戦術放送도 南北調節委員会의 共同合意로 중단 되었던 것을 일시 再現시킨 바도 있다. 하시라도 再開할 수 있는 태세준비를 갖추고 있는 形便이다.

北韓은 今年에 들어서면서 対南心理戦의 効果를 보다 높이기 위한 方法으로서 対外心理戦 活動에 力点을 加重하고 있다.

2月 中旬부터 시작된 大大的인 巡訪外交活動 즉 16個 代表団이 5月末 現在 72個国을 巡訪하면서 平和統一 宣伝공세를 펴고 있다.

美軍撤収 언커크 解體 南北会談의 지연책임의 南韓에 전가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現地 共同声明등을 내고있다.

또한 4月 5日에는 北韓 最高人民会議 5期 2次 会議를 開催하고 소위 「韓半島에 対한 外勢의 内情干渉을 종식시킬데 対한」 問題

를 討議하고 世界 各国 議会 및 政府와 美国 会議 및 政府에 書信을 보내고 그들 지지해 줄 것을 要請하기도 했다. 그 書信内容은 南北対話의 부진의 原因은 南韓側의 고의적인 불응에 있다고 했다. 또 北韓의 平和協定締結을 비롯한 軍事5原則의 정당성을 主張했으며 美軍撤収와 언커크의 解體에 対한 U.N의 肯定的인 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 書信外交에 対한 各国政府의 反応은 中共을 비롯한 共産国家나 親共的인 中立国에서 만이 好意的인 態度를 表示했을 뿐이다.

特히 今年 I.P.U加入과 W.H.O加入 決定을 계기로 北韓은 国際무대에서 보다 積極的인 宣伝공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그들의 対外政策의 部分的 성과를 対南心理戦에서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의 対南心理戦 現況을 대충 살펴보았다. 이에 対한 対備策으로서는 다음 몇가지로 問題提起를 할 수 있겠다.

1. 源泉的인 봉쇄책이 앞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72年 11月 10日의 両側 合議事項을 充実히 이행케 하며 나아가서는 間接的인 心理戦 作戦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南北의 通路가 設置되어 있는 만큼 充分히 가능한 일이라 본다.

2. 対南心理戦은 南朝鮮革命을 위한 与件조성에 봉사하고 있으므로 北韓側으로 하여금 南朝鮮革命論 「赤化統一論」을 포기케 하여야 한다.

3. 北韓의 対南心理戦의 効果를 成就할 수 없도록 우리 国民들 또한

鞏固한 思想무장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당국자들은 国民에 対한 北韓側 対南宣伝의 허구성을 分明하게 인식시킬 것이 要求된다. 때에 따라서는 北韓放送청취도 허가 함으로써 우리 国民들이 직접 北韓側의 허구적이고 비방일색의 放送을 듣고는 그 真僞를 직접 알게 하는 것도 한 方法이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한 政策에는 勿論 時間性등 치밀한 事前政策이 優先해야 할 것이다.

위 事実에 対한 확신을 주는 事例로써 南北赤会談時 서울에서의 北韓側 尹基福의 発言内容을 듣고 国民들은 분노를 금치못하는 격분의 감정을 表示한 것이 그 좋은 예이겠다.

4. 北韓의 心理戰内容에 못지 않는 우리側의 心理戰 戰略의 高度化가 또한 併行해야 할 것이다.

5. 우리側의 国内 弘報活動을 強化시켜 이를 最大限으로 활용하면 北韓의 허구적인 心理戰은 充分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6. 対内 弘報活動으로써 現在 우리나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維新課業에 전 国民의 総和를 모아서 이에 의한 維新的 국민정신 함양과 民主主義의 토착화 작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7. 작년 6月 23日 朴大統領의 7項에 걸치는 平和統一 外交政策을 発表했다. 이는 平和統一을 成就시키기 위해서 급변하는 国際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한 기본方向이다.

또한 새로운 政策変更이라고 볼 수 있다.

共産国家에도 門戸開放을 하는 길로 드러섰다. 이러한 状況変化는 対内的인 弘報活動에서 새로운 대책이 要求되고 있다.

特히 이를 계기로 北韓에서는 보다 積極的인 対外 및 対南心理戦 活動이 展開되어 가는 것을 감안할 때 냉철하고도 正確한 시국관 確立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国民들의 一致한 意志와 総和가 必要하다.

統一問題學術會議

6.25의 背景分析과 그 整理

— 戰爭挑發의 檢證을 中心으로 —

崔 敬 洛

國防大學院 副敎授

1973年 6月 28日～30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李厚洛委員長「당신들은 우리보고 자꾸 挑発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戦争을 일으켰는가」

朴成哲「過去는 過去이고 現実은 現実이다」

柳章植「아니 過去에 누가 戦争을 일으켰다는 말인가」

(1973年 3月 15日 南北調節委員会 第2次(平壌)会議前 歓談席上에서)

6.25事変은 누가 일으켰는가?

앞서 提示한 対談内容에서 보면 朴成哲은 北韓이 일으켰다는데에 肯定的이다. 그러나 柳章植의 態度는 그렇지가 않다.

朴成哲의 肯定的인 答辯에 対하여 柳는 눌데없이 그러한 말을 하느냐는 式의 叱責과 더불어 굳이 이를 가로막고 나서 飜覆하려는 唐惶한 모습을 뚜렷히 엿볼 수 있는 語調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激한 語調는 6.25事変을 일으켰다는 事実을 隠蔽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피에로"를 聯想케 한다.

朴成哲처럼 「過去의 事実은 事実」로서 肯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否定하는 側에게 더욱 確実히 해 두기 위해서 本論稿는「北韓이 6.25事変을 일으켰다」고 하는 事実에 対한 그 背景으로 国際的与件과 이에 따른 国内的与件의 두 側面에 視角을 맞추어 検証하는 接近方法에 依하여 整理해보고자 한다.

1. 北韓이 6.25事変을 일으키게된 国際的 与件

(1) 美国의 韓国에 対한 抛棄政策

1947年 9月 26日 美統合参謀本部는 처음으로 "韓国은 美国에 対하여 戦略的 価値가 없다"는 覚書를 作成 大統領에게 報告

하였다. 이러한 韓国에 対한 美国의 軍事的 價値判断에 있어서의 評價는 1945年以来 基本的으로 継続된 評價였다. 即 韓半島로의 人員과 物資의 流出로 因해서 其他 地域 特히 優先順位 第1에 位置하는 "유럽"에 있어서의 美国의 能力을 弱化시키게 됨으로 이를 回避하는 決定을 하게 된것이다. 이 考慮는 1948年 12月 蘇聯軍이 北韓으로부터 撤収함으로서 더욱 助長되었다. 蘇聯軍의 北韓으로 부터의 撤収는 1949年 6月末까지 駐韓 美国兵力을 撤収시킨다고 하는 白堊館의 決定에 크게 作用하였다.

撤収를 最終的으로 決定하려할때, 統合参謀本部는 "맥아더" 元帥의 見解를 要求하였다. "맥아더" 元帥는「韓国軍이 全面的인 侵攻에 抵抗하는 同時에 国内의 共産主義者들의 反乱을 鎮壓할 수 있을 程度로 韓国軍을 強化할 能力은 美国에게는 없다. 따라서 深刻한 威脅이 展開된다면 韓国은 抛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答辨하였던 것이다 또한 "맥아더" 元帥는 1949年3月2日 UP通信社記者와의 会見에서 美国의 防衛線을 比律賓 — 沖繩 — 日本 — "아류샨 — "아라스카"를 잇는 線임을 言明하였다.

結局 1949年 6月 29日 500名의 顧問教育団만을 남겨 놓고 駐韓美軍은 撤収해 버렸다. 事実上 駐韓美軍의 撤収는 이미 1948年에 計劃되었는데 1948年 가을부터 1949年 겨울에 이르는 동안 新生共和国의 安全保障이 共産게릴라에 依해 威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李大統領의 懇曲한 要請으로 延期된 것이었다.

駐韓美軍을 撤収시킨 美国이 取한 韓国軍 強化方案은 1949年

10月 6日 "트루맨" 大統領이 署名한 相互防衛援助法에 依해 1,020萬 "달러"가 策定되고 1950年 1月6日 正式協定이 韓.美間에 調印되었지만 事変이 일어나기 前까지 韓国으로 発送된 것은 5萬 "달러"의 信号用具와 29萬8,000 "달러"의 代替部品에 不過했고 더우기 実際로 그때까지 到着한 것은 겨우 数百 "달러"밖에 안되는 信号用具뿐이었다.

韓.美相互方衛援助法을 両国間에 調印한 1月6日의 6日後인 12日 "애치슨" 国務長官은 National Press Club에서 美国의 防衛線은 比律賓 — 沖繩 — 日本 — "아류산"의 線이라고 하여 韓国과 台湾을 除外하였다. 이 点에 関하여 "맥아더" 聴聞会에서의 質問에 그는 「美国이 部隊를 駐屯시키고 防衛을 公約한 地域 以外의 其他 地域에 対하여 어느 누구도 軍事攻撃에 対한 保障을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保障은 実明하지도 않고 또 必要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答辨하였을 程度로 그 当時에 있어서 美国의 不介入態度를 確固하게 決定짓고 있었다.

이 美国政府의 決定은 1950年 5月 2日字 U.S.News & World Report誌 記者가 "코네리" 上院外交委員長과 가진 会見에서 分明하게 들어 났다. 即 「美国은 韓国을 抛棄하자는 提案이 정말 考慮될 可能性이 있는가?」라는 質問에 対하여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그러한 事態가 될것 같다」라고 対答하고 또한 「그러나 韓国은 防衛戦略의 不可欠의 一部가 아닌가」라는 質問에 対해서는 「아니다. 다르다. 勿論 韓国程度의 곳이라면 어떠한 地域에서도 多少의 戦略的

價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戰略的 價値를 매우 重要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우리가 들은 証言에 依하면 絶対必要한 防衛의 環状線은 "아류샨" 列島와 日本과 沖繩, 比律賓이다」라고 한 答辨에서 証明되었다. 이 記者会見記事는 5月3日字 東京의 Nippon Times紙의 第1面 "톱" 記事로서 크게 報道되었다. 2日後인 5月5日字 "워싱톤" 発 "로이타" 通信은 "애치슨" 国務長官이「美国은 韓国을 抛棄해서 蘇聯의 손에 넣기게 할 것인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言明을 拒否」하였다고 報道하였다. 이것은 1949年 8月 蘇聯이 原爆을 保有하게 됨으로서 蘇聯과의 武力衝突로 美.蘇戰争의 勃発危険을 回避하는 意図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第2次 世界大戰後 6.25事変이 勃発하기 前인 1950年初에 最小의 兵力밖에 (146萬名; 1947年度는 163萬名 및 1951年度는 325萬名) 保有하지 않았던 美国政府当局은 38度線에서 触発될 可能性이 짙은 南北韓戰争으로 因하여 蘇聯과 全面戰争을 하게되는 危険率이 "이란" 보다도 높다고 判断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起爆剤가될 韓国軍의 北韓攻撃에 対한 可能性을 이미 1月에 美顧問団長 "로버쓰" 准将을 通해서 韓国政府에 対하여「萬若 北韓을 攻撃한다면 美国의 援助는 全部 即刻 停止한다」고 通告하여 厳格한 対韓国軍 軍事行動의 統制指置를 取하므로서 完全히 除去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덜레스" 国務省顧問이 6月17日부터 20日에 걸쳐 韓国을 訪問하였다. 그는 18日 38度線을 視察하였다.

38度線을 視察한 美国의 高位官吏는 그뿐만이 아니었다。"제섭" 無任所大使도 4月에 視察을 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는 民主党인 "트루만" 大統領에 依해 民主党政府의 政策에 対한 反対를 緩和시키기 위해서 国務省의 共和党顧問으로 任命되었지만 民主党政権의 対外政策中 特히 아시아政策에 不満을 가진 사람이었다。 6月19日 韓国 国会에서의 演説에서 그는 「당신들은 孤立해 있지 않다。당신들이 人間의 自由라고 하는 偉大한 志向下에서의 役割을 훌륭히 해 내고 있는限 決코 당신들은 孤立하고 있지 않다」라고 儀礼的인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1日 東京에서 "맥아더" 元帥와 会談을 가졌다。 그 後 그는「極東의 平和維持를 위한 美国의 積極的인 行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New York Times記者와의 会見에서 말하였다。그러나 그는 極東에서의 地上戦을 絶対로 안하겠다고 言明하고 또한 充分히 考慮한 끝에 決定한 "트루만" 大統領政府의 基本戦略을 뜯어고칠만한 位置에 놓여 있지 않고 하물며 政策決定에 参与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訪韓出発에 앞서 6月13日 New York Times記者와의 会見에서 「가령 韓国이 侵略되더라도 明白히 우리는 美国의 参戦을 暫約할 수 없다」라고 言明한 바 있었다。

다만 当時의 韓国政府로서는 張勉 駐美大使가 李大統領앞으로 보낸 極秘書信内容으로 보아 長期的인 眼目에서 "트루만" 行政府의 対韓抛棄志向政策의 修正 或은 好転을 可能하게할 그의 建議를 期待하는 程度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한편 北韓当局으로서는 "얼레스" 顧問의 訪韓과 38度線의 視察 및 国会에서의 儀礼的이나 韓国에 対하여 떠나기前의 言明과는 달리 매우 鼓舞的인 演說 그리고 "맥아더" 元帥와 会見後 "極東의 平和維持를 위한 美国의 積極的인 行動이 있을 것" 이라는 発言等 그의 一聯의 行態로 미루어 보아 美国의 対韓抛棄政策이 未久에 一大修正되어 積極防衛政策으로 転換되지 않나하는 判断을 하게된 重要한 考慮要素가 되었다.

그 当時만해도 意識的으로 回避하여 더욱 굳어지게된 美国의 対韓防衛除外 軍事戰略은 널리 알려진 美国의 基本戰略이었다. 그것이 "얼레스" 顧問이나 "맥아더" 元帥의 主張에 依해 修正된다고 하는 것은 美国政府가 抛棄를 闡明한 힘의 真空地帶인 韓国을 攻略할 수 있는 好機를 놓치게될 後悔莫及의 結果를 招来함으로 先手를 쳐야 되겠다는 "焦燥感" 또는 "強迫観念"을 北韓当局에 안겨 주었다고 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2) 中·蘇同盟体制의 成立

1950年 2月14日 中·蘇間에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条約을 調印하여 (4月18日發効) 東西의 両大共産国家는 同盟体制를 成立시켰다.

蘇聯은 1949年 8月 原爆을 所有함으로서 美国과 比肩하는 軍事大国으로 登場하였다. 中共은 同年 10月1日 中国大陸을 掌握함으로서 中華人民共和政府 樹立을 宣言하였다.

中共政府의 出現은 北韓의 背後에 威嚇要素가 없어졌다고 하는 点 그리고 北韓이 危殆롭게된 때에는 蘇聯만을 依持했던 状況이 中共에게도 期待할 수 있다는 点에서 北韓으로서는 매우 有利한 与件이었다.

그런데 中·蘇間의 同盟体制가 成立됨으로서 北韓當局은 急하게된 것이다. 그 理由는 中·蘇条約 第4条의 「両締約国은 平和나 一般的 安全의 強化에 対한 関心에 誘導되어 蘇聯邦과 中国과의 相互利害에 関한 모든 重要한 国際問題에 関하여 相互協議한다」는 条項으로 中·蘇両国의 行動이 相互 묶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中共이 北韓의 南侵을 支援한다고한때 이 問題는 必然的으로 中·蘇両国의 相互利害에 関係되는 重要한 国際問題를 惹起시키기 때문에 當時의 中·蘇関係로보아 事前에 相互協議하지 않을 수 없는 拘束力을 가진 것이다. 蘇聯側 立場도 中共과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行動의 自由에 対한 拘束力을 가진 条約이 同盟体制라는 形態로서 北韓과 蘇聯 그리고 北韓과 中共間의 締結은 時間問題였다. 北韓의 立場으로서는 速戰速決로 韓国을 攻略할 수 있는 対内外的 環境이 무르익은 好機를 制止 當한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点에 関해서는 〃스타린〃이 金日成에게 侵攻指令을 내렸을 것이라는 一部主張과 関聯시켜서 分析하여야 한다. 이 主張에 依하면 蘇聯이 6·25事変이 일어날때까지 北韓의 戰爭準備를 알지 못했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美国이 韓国으로부터 손을 떼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大規模로 介入하리라고는 予想하지 않고 戰争이 短期로 끝날 것으로 誤算해서 北韓에 対하여 侵攻의 青信号를 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蘇聯이 北韓의 戰争準備状態는 認知하고 있었다고 하는 点에 対하여는 判断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果然 그 時期를 알고 있었는가 또 한편으로는 美国과의 全面戰争 突入危険을 무릅쓰고 그러한 冒険을 敢行할것을 〃스타린〃이 決心하였을까하는 点에 対하여는 判断하기가 매우 어렵다. 枚数関係上 여기서는 몇가지 例証만을 들어 整理해 보기로 한다. 〃알렌반더·스미스〃議員이 韓国訪問後 1949年 11月 29日 非公式報告를 한바에 依하면 「北韓은 또 韓国接収에 蘇聯을 直接 介入시키려 試図하였지만 蘇聯의 回答은 韓国과 같이 重要하지 않는 地域에서 일을 일으켜서 第3次 世界大戰을 勃發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蘇聯은 6·25事変勃發後 〃유엔〃安保理事会에도 欠席한채 1950年 8月4日 〃마리크〃代表의 演説을 할때까지 駐北韓 蘇聯大使의 即刻的인 声明發表도 없을뿐만 아니라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이 〃마리크〃代表의 演説로서 蘇聯의 6·25事変에 対한 公式的인 声明을 發表하게된 셈이다.

그는 〃南北韓間의 戰争에 関해서 말한다면 이 戰争은 国内戰이며 侵略의 定義는 適用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戰争은 두個의 国家間에서가 아니라 朝鮮人民의 두個의 部分, 두個의 政府陣営에서 一時的으로 分裂된 人民사이에서 遂行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国에 있어서의 戰争은 国内戰이다. 侵略에 関한 宣言의 規定은 北韓

에게도 南韓에게도 適用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치 国家의 統一問題에 関한 国内戦을한 當時의 美北部聯合軍에도 南軍에도 侵略의 概念이 適用되지않았던것과 똑같다」라고 主張하였다. 그의 演説内容에서 蘇聯의 態度를보면, 첫째 韓国에서의 戦争은 国内戦이다. 둘째 北韓에게도 南韓에게도 侵略에 関한 宣言規定의 適用 即 侵略者라는 烙印을 찍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集約할 수 있다. 그 底意가 美軍의 撤収, 그리고 韓半島共産化의 黙視라는 두가지 側面인데 注目할 点은 侵略者의 烙印을 北韓뿐만 아니라 韓国에 対하여도 찍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主張이다. 이를 分析하면 6月25日 〃유엔〃安保理事会에서 北韓軍의 攻撃을 侵略으로 規定한데 対한 反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侵略에 関한 宣言의 規定은 南韓에게도 適用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語意에는 韓国이 侵略했다고 하는 是是非非를 가릴 必要가 무엇이 있겠는가하는 〃뉴앙스〃도 풍겨준다. 이렇게 볼때 蘇聯의 非関聯説은 論理에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스타린〃은 協議받지 않는 北韓의 南侵으로 美·蘇의 全面戦争을 避하면서 또 傍観者의 立場에서 自然的으로 美国의 軍事力을 消耗할 수 있게 되었다는 点과 韓半島의 共産化를 앉아서 먹게될 漁父之利를 얻을수 있게 되었다는 点에 満足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判断도 한편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中共은 어떻게 하였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前記한 〃스미스〃議員報告에 依하면 「내가 들은바에 依하면 南韓을 接収征服하기 위해 北韓은 中共의 援助을 얻으려 努力하였으나 中共은 自国의

다른 部分에 対한 일処理로 손이 꽈차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이를 拒絶하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폰·간사〃는 「그 當時 中共이 韓国戰爭에 介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者는 거의 없었다。一說에 依하면 中共은 韓国에서의 戰爭을 慨嘆하였다는 것이다。그 理由는 北韓의 侵略行為때문에 적어도 當分間은 毛沢東이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던 台湾을 손에 넣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라 記述하고 있다。〃월미·힐치록〃도 「北京當局도 攻撃을 行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스코바當局에 強硬히 抗議를 했으며 蘇聯側에서도 게임을 해 보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論評하고 있다。 前述한바의 中·蘇条約 第4条에 따라 蘇聯은 當然히 中共과 協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侵攻을 蘇聯이 몰랐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台湾에 対한 防衛도 韓国처럼 美国은 拋棄政策을 追求하였다。 1950年 1月5日 〃트루만〃大統領은 記者会見席上 文書에 依한 声明을 發表하였다。即 「美国으로서는 台湾의 蒋介石에게 軍事援助 또는 助言을 할 意向이 없으며 또 中国의 国内紛爭에 휩쓸릴 挺慮가 있는 方針을 取할 意図가 없음을 言明하였다。

그러나 仮令 北韓의 速戰速決戰略으로 韓国攻略이 成功하였을 경우에 果然 美国이 台湾마저도 中共이 侵略하도록 그대로 傍観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中共의 立場으로서는 内戰으로 疲弊한 経済復興과 더불어 国内政治의 整備作業에 優先을 두고 軍事力을 増強한後 台湾攻略에 나서는 것이

보다도 有利한 것이었다.

이러한 観点에서 볼때 中共의 非関聯説이 理致에 맞는 判断일 것이다.

그러면 結局 韓国에 対한 攻撃命令은 〃스타린〃이나 毛沢東의 指示도 받지 않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金日成이 単独으로 내린 것이라는 結論이 導出된다.

2. 北韓이 6·25事変을 일으키게된 国内的 与件

1950年 6月 9日 〃무치오〃駐韓美大使는 議会에 다음과 같은 陳述書를 提出하였다. 即「北韓에 依한 侵略의 威脅은 적어도 一時的으로는 抑制되고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北韓軍의 否定할 수 없는 物的 優越은 韓国에 対한 全面的 侵攻의 경우에 北韓에게 勝利의 余地를 提供하게될 것이다.

이와같은 優越은 歩兵支援用의 重武器, 戦車 그리고 戦闘機에 있어서는 特히 明白하다.

蘇聯은 그의 朝鮮의 傀儡에 이것들을 供給해 왔고 지금도 継続 供給하고 있다. 中国에 있어서 共産主義者들의 最近의 成功도 事態를 重大하게 하고 있다.

特히 中共軍으로부터 不特定数의 朝鮮人部隊가 朝鮮에서의 服務를 위

하여 解放된 結果 北의 軍事的인 潜在力은 顯著하게 增強되었다。

北쪽에 韓国의 征服과 支配를 바라는 侵略的인 共産主義가 存在하는 限 韓国에 対한 威脅은 継続될 것이다」라고 하는 内容이다。

이 陳述書는 美国의 政策決定의 最高段階에 있어서 勿論 特別한 注意를 끌지 못하였다。

그리고 南北韓両軍의 相対的인 力量에 関한 支配的인 評価를 修正하지도 못하였다。

美国에 亡命한 〃키린·카리노프〃蘇聯軍大領의 1950年 9月 26日 및 10月 10日의 証言에 依하면 蘇聯은 撤収하기 前에 北韓軍 4個師団을 訓練하고 優秀한 戦車 50台를 넘겨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韓国海峡의 船舶과 美国占領下의 日本을 攻撃한 것을 두려워 制限하기는 하였지만 戦闘機를 主로 하는 航空機 150台를 提供했다고 하는 것이다。

1950年 3月10日 〃맥아더〃司令部는 北韓軍이 16個師団을 動員하고 있다는 情報를 〃워싱톤〃當局에 報告하고있다。 美国 第82議会의 上院外交委員会 및 軍事委員会에 提出된 報告에는 〃애치슨〃宣言이 發表된後 北韓軍은 13個師団 및 3個旅団을 編成完了하였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여기에 戰車 150台. 砲 600門 및 迫擊砲 1,000門으로 裝備한 軍事力이었다. 또한 "루마니아"로부터 300萬 바렐의 揮發油를 導入하고 있었다. 反面에 韓国軍은 6萬 5,000名 5個師団 兵力으로 6.25直前까지 戰車도 重砲도 戰闘機도 保有하지 않은 狀態였다.

5個師団中 2個師団 兵力이 게릴라 掃蕩戰때문에 南西部에 配置되어 있었고 38度線에는 3個師団規模의 兵力밖에 配置되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유엔" 監視委員団의 報告한대로 軍의 士気는 低下되어 있었다. 重裝備 獲得努力은 每事가 美国政府의 無成意로 水泡로 돌아갔다. 例를 들면 1949年 10月 国防長官이 189台의 戰車를 要請하였다가 韓国의 地勢·道路 및 橋梁 条件이 戰車作戰의 效果를 기둘 수 없다는 理由로 駐韓軍事顧問団長 代理에게 拒絶当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彼我의 戰力을 比較가 되지않을 程度로 韓国軍은 虛弱하였다. 이 当時의 事情을 "맥아더" 元帥는 그의 聽聞会 証言에서 「韓国軍은 北韓軍에 全혀 対敵하지 못했다. 그리고 韓国軍에 依한 兵站能力의 配置는 極度로 貧弱하였다. 그들은 補給品이라면가 裝備를 38度線 걸에 配置하고 있었다. 그들은 深層配置를 取하고 있지 않았다. 38度線과 서울間은 모두가 兵站地域이었다.」라고 明白히 하고 있다.

또한 1950年 5月 30日의 総選挙結果는 210名의 与党議員中 겨우 30名이 再選되므로서 李承晩政権에 対한 国民의 不信이 如実히 나타났다. 無所屬議員이 130名으로 大挙進出한 結果 政治的인 不安定狀態가 露呈되었다.

虛弱한 軍事力의 保有 그리고 政治的 不安定의 露出은 侵略者에게 対하여 침을 흘릴만한 対象物이었다. "덜레스" 顧問이 韓国訪問 後 歸国途中에 "호노루루"에 들렀을때의 記者会見에서 「韓国의 情勢는 危機에 処해 있다고 알았지만 北韓의 攻撃은 豫想外로 빨리 왔다」라고 말한것 처럼 매우 危険한 状態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 北韓은 巧妙하게도 偽装된 平和攻勢를 展開하여 韓国国民뿐만 아니라 美国을 비롯한 自由陣営国家의 国民들의 눈길을 平和志向行為에 눌려 警戒心을 풀게 하였던 것이다. 即 1950年 6月 3日 以後 平壤放送은 530萬名 北韓人이 平和와 統一을 呼訴하는 署名을 했다고 報道하고 이에 呼応해 줄것을 継続 呼訴하였으며 심지어 個人招待状까지 呼応人士에게 보내겠다고 内外에 宣伝하였다.

그리고 北韓人民議会는 6月 16日부터 19日까지 即時 平和統一을 위해 協議会를 組織하기 위한 両者会談을 開催하자는 公式提案을 韓国議会에 提議하고 그 協議会는 開城이나 海州에서 하자는 따위이다. 이러한 一連의 平和攻勢는 韓国과 美国의 政府当局者 및 国民의 意表를 完全히 찌르는데 크게 奏效하였다.

以上과 같은 国際的 与件과 国内的 与件을 背景으로 하여 金日成의 侵略決定 段階를 살펴 보기로 한다.

金日成은 1949年 4月 民主愛国統一戦線大会에서 「統一을 妨害하는 祖国에의 反逆者에 反対하고 国家의 統一을 時急히 回復하는 闘争에 人民의 모든 힘을 動員한다」라고 演説하였다. 即 여기에서 金日成은 侵略準備를 決定한 것으로 判断된다. 그러다가 1950年 5月 "統一的

民主主義 独立国家의 建設을 指向하는 人民의 闘争」이라는 글에 「統一된 独立国家의 建設을 指向하는 우리人民의 闘争은 새로운 段階에 들어가게 되었다. ……

国土의 完整과 祖国의 統一을 위한 새로운 闘争隊形을 緊急히 講究할 것이 必要하게 되었다」라고 強調하고 있듯이 統一을 위한 闘争 即 게릴라戦의 段階는 새로이 人民解放戦争段階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때 南侵을 決定한 것으로 判断된다. 6月25日을 択한 理由는 "덜레스"의 訪韓(6月 27日歸国)으로急하게된 点. 모내기가 全部 끝나서 兵站線의 確保가 可能하게된点 그리고 日曜日이기 때문에 韓国軍将兵의 大部分이 外出中이라는 点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6月25日 午後 1時 35分 即 侵攻命令을 내린 9時間 35分後 破竹之勢로 進撃을 한 北韓軍이 南侵에 成功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平壤放送을 通하여 200字 原稿紙 約 32枚分이 되는 名文으로된 글을 읽었다. 即 「傀儡政府軍은 38度線 北部의 地域에 攻撃을 開始했다. 그 攻撃을 海州地域에서 停止했다. … 瑟津·開城 抱川 其他 38度線 以南 10～15㎞ 地域을 解放했다 ……」는 것이다. 38度線 以南 10～15㎞ 地域에 이르려면 아무리 無力한 軍隊가 防禦한다 하더라도 2～3時間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6時間程度의 原稿를 쏠餘餘裕밖에 없을텐데 사람의 能力으로 막베낀다 하더라도 어려운 32枚分의 原稿를 그 위에 修飾語까지 섞이고 또 우리国民과 〃팔찌산〃들에게 協力를 부탁하는 政策的 文章을 엮는다고 하는 것은 그 程度의 時間으로는 不可能하다. 文章

이 다듬어질때로 다듬어지고 흠잡을 수 없이 꾸미자면 優秀한 몇사람의 政策參与者들이 적어도 3日間을 두고 討議를 거듭하고 推敲끝에 作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常識의 領域이다. 金日成自身도 이러한 計算을 미리 하지 못한 것이다. 金日成의 우리側이 挑発했다고 主張한 原稿는 急히 갑자기 쓰여진 것이 아니고 最小限 하루前인 6月 24日에 作成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妥当하다. 換言하면 金日成의 指令에 依하여 미리 計劃된 時間表에 따라 6月 25日 새벽 4時에 戰爭을 일으켰다고 하는 重要한 하나의 実証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이가 6·25事変을 일으켰다고 하는 또하나의 実証으로 들수 있는 것은 1960年 4月 平壌 朝鮮外国文出版社에서 発刊된 所謂「事実은 말한다 朝鮮戰爭 挑発의 内幕」이라는 宣伝册子에 収録된 우리側의 26件의 機密文書(中央廳에서 押収)조차 焼却할 時間的 精神 余裕마저도 李大統領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結局 奇襲侵攻을 당했다는 것을 立証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에 한가지 附言해 둘 것은 그 26件의 機密文書中에는 우리側이 挑発했다고 하는 것을 実証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事実이다.

綜合的으로 위의 모든 与件과 実証에 立脚해서 볼때 結局「6·25事変은 金日成이가 誤判에 依해 単独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結論이 導出된다.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學術會議 合意書 (草案)

1973. 6. 30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合　　意　　書

前　　文

1. 全国 26個大学 및 言論機関附設 統一 및 安保関係研究所 代表者들은 우리나라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이 새로운 次元에서 展開되는 歷史的 現実을 背景으로 1973年 6月 28日부터 30日까지 全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에서 3日間의 学術会議를 開催하였다.

2. 이 会議에서 南北対話와 国論統一이라는 総主題下에 70年代의 内外情勢를 中心으로 우리나라의 統一과 安全保障環境을 多角的으로 分析, 評価하고 나아가 이 時期에 있어서 韓国知識人과 輿論指導層이 가져야 할 姿勢를 検討했다.

3. 同時에 이 会議에서는 政府와 知識階層이 急激히 変動하고 있는 内外情勢에 能動的으로 対処하고 나아가 変革期의 政府政策과 国民들의 時局観間의 間隔을 좁혀 国民的 合意基盤을 넓힐 수 있는 方案에 関해서도 폭넓은 意見을 交換하였다.

4. 이 会議는 以上과 같은 討議와 研究 끝에 現時局에 있어서 国論을 統一하고 政府와 国民들의 精神的 一体感 진작을 為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에 意見을 모으고 이를 会議結論으로 発表한다.

合 意 事 項

가. 6月 23日에 発表된 政府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은 急変하는 国内外情勢에 自主的으로 対処하면서 韓半島의 平和秩序確立을 平和的 祖国統一의 前提로 設定했다는 点에서 가장 現実的 統一外交政策임을 確認한다.

나. 同時에 이 平和統一外交政策 宣言은 内外情勢의 推移와 南北関係発展의 長期的 眼目에서 分断固定化가 아닌 現実的 合理的 統一接近 努力이라는 点에서 가장 賢明한 選択임을 確認한다.

다. 아울러 이 宣言에 明示된 바 祖国의 平和統一이 아직까지 成就되지 못한 理由가 北韓側의 平和統一 拒否行動과 그들의 分断固定化를 追求하는 対外活動에 있다는 事実을 다시금 確認한다.

라. 우리나라의 統一政策과 安全保障政策은 南北関係의 冷厳한 現実에 결코 分離시킬 수 없음을 確認하고 오직 国力培養을 通한 힘의 立場堅持만이 統一과 安保의 実質的基盤이 된다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

마. 또한 우리나라의 安全保障環境에 비추어 볼 때 駐韓UN軍은 韓半島에서 侵略의 威脅이 없어지고 平和秩序가 定着될때까지 平和維持의 任務가 継続되어야 한다는데 意見을 같이 했다.

바. 오늘날과 같은 変革期의 状況에 있어서 大学과 言論機関은 国民들의 時局観을 올바로 善導하고 나아가 総力外交時代에 対応할 国民的 合意形成에 主導的 役割을 担当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사. 政府는 大学과 言論機関이 새로운 国際情勢와 南北関係를 올바로 認識하고 나아가 主要政策形成에 積極的으로 参与할 수 있는 環境造成을 為하여 北韓 및 共産圏関係資料를 幅넓게 開放하고 研究活動을 促進할 수 있는 財政的支援의 幅을 넓힐 것을 建議한다.